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FAITH &
LIFE

신앙과 삶

11+12
NOV + DEC
2023 vol.27



특집

기독교와 공공선·공동선

사람 사이 조주희(성암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청년일터이야기 음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여정

문화로 세상 보기 어떻게 희망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ISSN 2671-8731

Contents

NOVEMBER + DECEMBER · 2023

시선

복음 자체가 공적인 선이다 | 손봉호 02

편집장의 말

교회가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 신국원 04

특집

기독교와 공공선·공동선

공동선·공공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김동춘 06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의 공동선 기여 | 정재영 08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 | 김유준 10

급변의 시대,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기업을 열망하는 기독교인 경영자 됨 | 이대희 12

공동선·공공선 이전에 공공약 반성이 우선이다 | 이병주 14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 김종철 16

모두와 더 나은 공존을 위한 '선'하고 '성숙'한
공적 교회, 공적 신앙 | 김현아 18

순수한 섬김을 통한 공적 봉사와 기쁨 | 이상욱 20

빈곤층 구제, 그 너머를 바라보자 | 탁장한 22

사람 사이

조주희 성암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24

섬김의 자리에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학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 윤현준 28



2023. 11+12월호 | 제27호(통권 242호)

〈신앙과 삶〉은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로서 회원 간의 교제와 나눔의 장으로, 우리 시대 문화와 사회의 정신적 토대를 성찰하고, 그 안에 배어 있는 반기독교적 요소들을 경계하며, 기독교 세계관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임 받고자 합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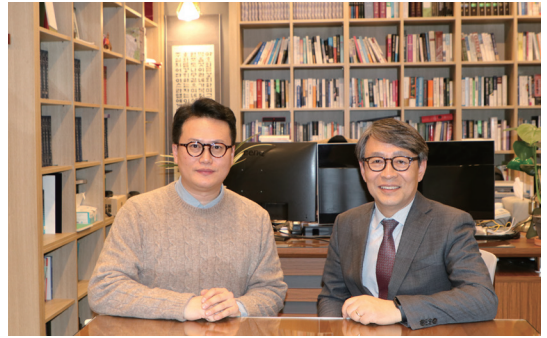


청년, 삶을 고민하다

청년 시론	
은혜와 고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박세혁	30
영적 예배와 합당한 삶 우재석	32
청년 일터 이야기	
분주한 직장인에서 평신도교회로 박대희	34
음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여정 김사내	36

문화로 세상 보기

영화를 보다	
의료선교의 역동성이 일으킨 감동의 영화 강진구	38
미술을 보다	
어떻게 희망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서성록	40
책을 보다	
성경에서 배우는 돈 걱정 없는 인생 이철민	42
한국교회가 찾아내야 할 돌파구, 탈성장 교회 이상민	44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공공성 이춘성	46



교회 路

보성교회 고엘뱅크 소개	
고엘뱅크의 새로운 출발 김신영	48
보성교회 고엘뱅크 이용자 소감문 이주연	49

은전한 지성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공공선·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	50
--	----

소식

사무국 소식	52
관련기관 소식	53
재정보고/후원자보고	54



복음 자체가 공적인 선이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동역회 명예이사장)



코로나 19가 창궐했을 때 한국교회의 주 관심사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대면 예배였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시했던 대면 예배는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고, 사회로부터는 자신들의 종파적(sectarian) 특성을 지키느라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비난만 받게 되었으며, 공정성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대거 잃고 말았다. 주 후 2세기로 로마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는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길거리에 버려진 환자들을 구제해서 교회 성장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그와는 정반대로 행동했고 그 열매도 당연히 부정적이었다. 코로나 19는 한국교회의 약점을 고스란히 폭로하고 말았고 한국교회는 그 쓴 열매를 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영국의 성경학자 필립스(J. B. Phillips) 목사가 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Your God is too Small, 1952)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잘 지적하고 있고,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점이 어디 있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말

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세상과 역사의 주권자’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기껏해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는 ‘종파적인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그런 인식이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과 일상적인 삶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밖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먹서먹한 딴 세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일 뿐 그 자체로 특별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이익, 모든 사람에 대한 선행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다만 여유가 있을 때 관심을 보일 수 있는 부차적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에서는 그런 것에 관심을 쓰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적’, ‘세속적’, 심지어 ‘좌파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너무 좁고 복음의 혜택은 너무 축소되어서, 신자들의 관심과 사역 영역이 매우 한정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좁은 영역만 지배하시는 “아주 작은” 분으로 인식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성(聖)과 속(俗)’, ‘교회와 세상’, ‘신앙과 사회활동’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교회와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에 소홀하게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교회 자체의 성장과 건강한 신앙생활 자체도 방해를 받게 만들었다. 정치계가 신앙과 무관하면 그리스도인 정치가가 불신 정치가와 다르거나 그들보다 더 정의로워야 할 이유가 없고, 그리스도인 기업인이 다른 기업인보다 더 정직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인 학자가 다른 학자들과 다르게 학문 활동을 할 의지가 생길 수 없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히는 것도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영역 바깥에 있기에 성경의 가르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영역은 한 뼘도 없다”라는 카이퍼(A. Kuyper)의 지적처럼, ‘크나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공익, 공공선·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무엇이 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항상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롬 7:17, 새번역)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당 부분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의하고 시행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마 5:16)라는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여러분은 이방 사

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벧전 2:12)라는 베드로의 권면은 모두 이방인들도 무엇이 선하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전제한다. 교회가 전염병 확대를 막기 위해서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대체하면서 방역에 앞장설 뿐 아니라 2세기 로마 신자들처럼 전염된 사람을 하나라도 더 고치려고 애썼더라면 한국 사회는 교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이다. 대구 동산병원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불교 재단으로부터 ‘만해상’을 받았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의 이익에 공헌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하나님을 ‘크나크신 하나님’, 세상과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에 근거해서 사적,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는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복음에 충실한 것도 종교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 전체에 반영하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공익에 공헌하고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손봉호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명예 이사장이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기아대책 이사장을 역임했다. 도산인상, 국민훈장 모란장, 서울대 사회봉사상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도 섬기고 있다.

교회가 사회적 공동선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

신국원 (<신앙과 삶> 편집장)

이번 호에서는 공동선을 다룹니다. <시선>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겨 하나님의 주권을 교회와 신앙에 국한하는 잘못을 돌아봅니다. 그 결과, 종파적이 되고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라는 인식에 근거해 살아가는 비전임을 상기시킵니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이유는 복음에 충실한 것이 공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특집> 첫 글에서 김동춘 교수님은 공동선 추구의 기초인 기독교의 보편성과 일반성의 신학적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일반은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동선과 공공선을 강조함이 자칫 기독교적 가치와 규범의 위축과 퇴각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도 일깨워 줍니다. 정재영 교수님은 한국교회가 초기의 선구적 역할을 잃어버린 아쉬움을 토로하며 신앙생활을 공적 기준에서 점검할 필요를 지적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추고 시민적 연대도 갖추어 공공 종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합니다.

김유준 목사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선으로 존재하심에 기초해 청년 사역을 논하고 계십니다. 공정과 평등을 추구하며 창조세계 전반에 하나님 나라 비전의 싹을 틔워 열매 거두게 할 것을 꿈꿉니다. 이대희 샘병원 이사장님은 비영리 의료법인을 운영하며 기

독교가 ‘공민적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씨름했던 고민을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면서 겸손하고 순수하며 단호하지만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님은 기독교가 세상을 오해하고 혼동에 빠져 사회적으로 거의 파산 상태가 된 것을 탄식합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사랑의 복음주의가 만들어내는 ‘공공악’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김종철 변호사님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할 이유를 종말론으로 조명합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미리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현아 사무국장님은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공공성의 함양과 실천’을 위해 선함과 성숙한 공적 신앙을 실천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이상욱 목사님은 경북대 병원 신우회가 유학생 무료진료 행사에 참여한 교회들이 연합해 진정성 있는 공적 봉사를 통해 복음의 발을 일군 경험을 나눕니다. 쪽방촌에 살며 사회복지 연구를 탐구한 탁장한 형제님은 구제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악을 성찰하며 얻은 신앙과 학문의 진보를 소개합니다. 도움을 받는 이가 아니라 돕는 이를 각성시키는 연구 방향을 잡게 된 것이 계기였다고 했습니다.

<사람사이>에서는 오민용 박사님의 안내로 성암교

회의 공공선 실천을 조주희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 지역의 필요를 조사하고 사역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문제와 아픔에 함께 하며 공공기관과 복지기구들과 협력도 중시했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는 따듯함으로 국가복지와 차별된다고 보았고요. 청년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 세상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당부합니다. <섬김의 자리>의 윤현준 교수님은 저희 청년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된 과정을 들려줍니다. 공학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학자의 비전도 나눕니다.

<청년시론>에서 우재석 형제님은 필리핀 비전트립을 통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공동선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에 눈을 뜬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청년일터>에서 박대회 형제님도 전문성을 갖춘 해외 캠퍼스 선교 비전과 평신도교회를 섬기는 경험을 소개합니다. 김시내 자매님은 음악치료사로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체험한 자신의 치유과정을 나눕니다.

<영화를 보다>에선 강진구 교수님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의 감동을 전한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다큐영화를 소개합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도 30년간 필리핀 오지 마을에서 '힘을 뺐' 그러나 역동적인 의료선교에 헌신한 실화입니다. <예술을 보다>에서 서성록 교수님은 공공미술 형식의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응의 경험처럼 양질의 문화를 만들어 이웃과의 나눔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책을 보다>에선 이철만 자산관리전문가께서 청지기

의 관점에서 주어진 재물을 투자하는 지혜를 담은 조성표 교수님과 백정선 자산관리전문가의 공동 저서,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소개합니다. 이상민 박사님은 이도영 목사님이 <탈성장 교회>에서 '적정교회'를 통해 제시한 통찰을 한국교회가 찾아내야 할 돌파구로 제시합니다. 이춘성 목사님은 송용원 교수님의 <하나님의 공공선>에서 공공성이나 공익보다 더 큰 개념인 공동선을 재발견하여 환대와 정의를 회복할 책임이 핵심이라 했습니다.

<교회로>에선 보성교회가 운영하는 소액대출 협동조합인 고엘뱅크를 김신영 형제님이 소개합니다. 이주언 부장님은 도움이 되려 고엘뱅크에 가입했다가 자신이 대출을 하면서 겪은 진솔한 이용 소감을 나눕니다. <온전한 지성>에서는 '공공선·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모였던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의 면면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편집을 하면서 늘 헌신적으로 써 주신 모든 글들이 주는 깊은 울림과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금번 호엔 한국교회가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할 일에 대한 통찰들로 가득합니다. 저희 소식지가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세움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수고를 마다 않고 애써 주신 편집위원들과 필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FAITH & LIFE**



 글쓴이 신국원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이자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장이다. 총신대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M.Div., Th.M)했고, 캐나다 기독교학문연구소(ICS)와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문화철학을 전공해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총신대 명예교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초빙교수, 삼일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공동선·공공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김동춘 (느헤미야 원장, 조직신학 교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특수모임인 교회를 기반으로 세워진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특수성을 지닌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터 위에 세워진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이지 세상이 아니다.” 또한 “세상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지 않지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의미와 고유한 자기 영역을 지닌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church is in the world, not but of the world). 교회와 세상은 분명 두 개의 나라요, 별개의 왕국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자체의 특수성과 정체성의 측면만이 아니라 보편성과 일반성의 측면을 지닌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역시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공동선 혹은 공공선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를 교회적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며, 고백적 기독교가 아니라 사회연대적 기독교의 측면을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을 공통성, 일반성, 보편성의 측면에서 사고하는 것이다. 그럼 공동선, 공공선의 기독교를 위한 신학적 사고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성

육신은 하나님께서 세상 현실을 긍정하셨으며, 그 현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제 더는 하나님과 세상사이의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초월과 내재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회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현실은 이 세계의 현실로 들어왔다”라고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현실과 세계현실은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속의 인간, 인간적인 인간이 되심으로 이제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영역이 따로 있지 않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거룩한 세속성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본회퍼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지 않고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공동선과 공공선을 위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론적인 접근이다. 그리스도께서 육화(肉化)하십시오 인간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현실로, 하나님의 차원과 만나게 된다. 이것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세속 현실을 긍정하고, 세속의 시민사회에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공동선과 공공선은 기독교적 근거에서만이 아닌 창조신학적 근거에서 설명된다. 공동선을 설명할 때 기독교 세계관은 주로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한 문화명령에 근거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문화명령은 국가영역에서의 정치적 활동, 경제영역에서의 노동행위, 결혼을 통한 가정 등 인간의 총체적 활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위임이다. 문화명령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의 제자 삼는 전도 명령보다 더 포괄적인 명령으로 본래는 신자에게 주어진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 즉 불신자를 포함한 전 인류에게 주어진 위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명령이 불신자, 교회 밖의 사람들, 일반인까지 포괄하는 근거는 이 위임 명령이 구속된 신자에게 제한되는 특별한총에 근거하기보다 (타락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형상의 잔존물로서) 합리적 이성과 도덕성, 그리고 자연적 은혜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일반은총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적 영역에서 공공선과 공동선을 구현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지점이 있다. 소위 문화명령과 일반은총으로 대표되는 기독교 세계관은 변혁모델이다. 변혁모델은 현존하는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질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변혁해 나가려는 사회전략이다. 그런데 공동선과 공공선 개념은 교회가 세상 질서와 구조를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변혁하자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기보다, 기독교와 보편 사회, 교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데 지향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공동선과 공공선을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의 문화 유형론으로 설명한다면,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분리모델)는 더더욱 아니며, 그렇다고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역설모델)도 아니며, 또한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도 아니라 '문화의 그리스도'(일치모델)에 가까운 개념이다. 기독교가 공동선과 공공선을 실현하려면 기독교적인 것과 시민적인 것 사이의 공통성과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

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성의 덕목이다.

시민성이라는 덕목은 사회 일반의 보편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되, 기독교적 독특성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아야 하며, 예의 바름과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공공에서 무례하지 않음, 즉 정중함(civility)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러한 덕목은 지금의 한국 기독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기독교가 시민사회 안에서 관용, 무례하지 않음, 예의 바름을 가지면서 상호소통과 일치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사회 속에서 공공선과 공동선을 구현하는 최선의 전략인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성 전략은 기독교적인 가치와 도덕이 시민사회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될 때 가능한데, 어쩌면 이런 방식이 기독교적인 가치와 규범의 위축과 퇴각을 초래할 여지가 있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동선과 공공선 전략은 어쩌면 리버럴한 기독교의 한 형태이고, 거슬러 가면 문화개신교주의(cultural protestantism)의 또 다른 유산이라면, 이 방향의 기독교의 사회전략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동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원장 & 조직신학 교수이다. 총신대 신학과 학부와 신학대학원(M.Div.)을 나와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에서 신학박사(Dr.theol)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사회적 책임의 신학>(2009), <전환기의 한국 교회 : 복음과 사회적 제자도를 위한 신학>(2012), <기독교 윤리의 숲>(2021)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노동하는 그리스도인>,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칭의와 정의>, <탈 교회: 탈 교회 시대, 교회를 말하다>(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학술총서, 2) 등이 있다.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의 공동선 기여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한 사회’(good society)에 대한 논의는 인문 사회과학 영역에서 오래된 주제이다. 시대를 넘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데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사태 이후에 뉴노멀을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표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주제이다.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이전의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동선의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는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규범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교회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

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사태 동안 보여준 교회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라기보다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익집단과 같이 여겨지고 있다. 전래 초기 한국 개신교는 사회 부조리를 혁파하고 새로운 가치 질서를 제시하는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오늘날의 개신교에서 공공의 선이나 선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신앙과 삶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자신의 신앙이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 정신에 따라 실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역시 개개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된 그리스도

인이라면 교회 밖에서도 일반인들과는 다른 더 엄격한 도덕 기준에 따라 일반인들의 삶의 양식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삶의 무대로 여기며 자신의 신앙을 공공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 가족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시민의 모습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공적인 기준에 의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예배당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신앙고백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자신의 기준만 아니라 공공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표출되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지금은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성경에 바탕한 공동체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이웃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동체는 타인을 위한 삶을 지향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이루어 유기체로 하나된

지체임을 인식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사랑의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이 모여 시민사회를 이룸으로써 시민사회의 원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사회 임무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시민사회를 위한 결속에 가장 기초가 되는 조직이다.

또한 지역사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시민적 연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작동원리이고, 그것이 구현되는 것이 시민공동체라면 이것을 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마을 단위로 쉽게 시도될 수 있다. 교회가 시민 연대를 통해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부터 공동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가진 자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효과 있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역시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고 실현하는 공공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FAITH & LIFE**



글쓴이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교수이다. 연세대(B.A., M.A., Ph.D.)에서 공부했고,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편집위원, 한국종교사회학회 재무이사, 21세기교회연구소 소장이며, 바른교회아카데미 연구위원,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을 역임했다. 저서로 《한국교회의 미래10년》, 《한국교회의 종교사회학적 이해》, 《소그룹의 사회학》, 《현대한국사회와 기독교》(공저),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공저),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공편), 《그들의 자살 그리고 우리》(공저), 《교회 안가는 그리스도인》, 《함께 살아가는 마을과 교회》, 《강요된 청빈》 등이 있다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

김유준 (주빌리교회 목사, 숭실대 초빙교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선으로 존재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도 공동선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근거로 청년 사역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공동선은 하나님, 나, 이웃이 하나로 이어진 전망을 드러낸다”라고 서술한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살림의 기치 아래서 생동하는 공동선은 누구도 함부로 배제되거나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그 누구도 낙오될 수 없다”라고 했고, “공동선은 인자, 성실, 공흠, 정의, 공의와 같은 영적인 것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육체적 안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초대 교부이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강론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이 가장 완벽한 기독교의 법칙이고, 정확하게 세워진 이

정표이며, 무엇보다도 최고점”이라고 설교했다.

청년들은 자신의 역량과 열정을 활용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우며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무종교 대학생 비율은 73.7%로 증가하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의미 있는 도전이나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회와 대학의 신앙 공동체는 그 존립 자체에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교회는 크게 위축되어 200만여 명의 개신교인이 감소했다. 100명 규모의 교회 2만 개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청년들의 교회 이탈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며, 교회의 대학청년부나 캠퍼스선교단체는 거의 붕괴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 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일상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소수에게 주어지는 합격과 취업의 기쁨과 달리, 대다수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의 숲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막막함과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제는 교회에서마저 이들을 향한 공감과 위로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공하고 취업한 이들을 향한 축하와 격려 속에 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합격과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함께 주거와 생계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교회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과 고충은 자신의 ‘노오력’이 부족한 자들의 자기변명처럼 치부되기 쉽다. ‘자조’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를 단지 개인적 문제로 치부해 버리고 있는 ‘거대한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야말로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공조’ 사회의 모범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공동선을 향한 효과적 청년 사역을 위해서는 청년 사역자들이 속한 공동체만을 위한 파편적이고 편협한 사역에 매몰되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통진적 사역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에 대한 신학적인 틀과 협력의 체계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정과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과 대응, 기회의 평등성을 증진하는 교회와 시민 단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다.

둘째,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사업과 프

로젝트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의 생태구조와 제도적 변화의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하며 자격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차원의 중장기 사역을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과 같은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공적자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과 함께 선교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중장기적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청년들이 교육과 역량 개발을 통해 사회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가치를 논의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비롯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회적 기업의 지원과 창업을 통한 사회적인 영향력 발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동선을 향한 이러한 청년 사역은 예배와 친교 등 교회 울타리 안에서의 사역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전반에 걸쳐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선에 참여하는 청년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변화의 싹이 움틀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와 희소식을 거둘 것이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유준

주빌리교회 목사로서 서울 종로구에서 마을공동체 (K-Culture Campus)를 섬기며, 숭실대학교 초빙교수로 소그룹 채플과 함께 글로벌 선교센터를 세우고 있다. 연세대와 한신대에서 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다.

급변의 시대,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기업을 열망하는 기독교인 경영자 됨

이대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사장)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수1:7-8), 좌우극단을 피하고 적절한 중간을 걸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일석이조’(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일까? 그보다는 ‘다석’(多石)으로 라도,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는 것일까?

최근 사회적 급변들을 보면서, 두 마리 중 하나에 목숨 건 사람들이 매우 많고, 그들은 이 한 마리를 놓칠 때, 큰 상처와 부작용, 혼란을 경험하며, 함께 늪에 빠져들기를 주저하지 않음을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탐욕과 나태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다스려야 한다. 공동체적으로는 적절한 성장과 효율적 나눔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활성화해야 한다. 그런데 탐욕적 구조 악을 이야기하며 나눔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 그리고 나태 및 ‘내로남불’ 성향의 개인 악을 이야기하며 성장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보수 사이의 치열한 공방이 있어왔다. 진보는 까발려지고 보수는 중도로 끌려가는 변화를 겪었던 것 같다.

이러한 구조 및 개인 악에 관한 진단들과 구조변경 및 파이(Pie) 확장을 우선시하는 처방들의 적절한 조합은 가능할까? 이러한 새로운 진단 및 처방의 조합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세상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의 표현으로 겸손히 풀어내면서, 온유함으로 세상에 의견

을 개선하는, 덕스러운 공공신학이 복음주의적 교회의 구성원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제공될 수 있을까?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아하시며 비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좋아할까?

로잔대회의 권고처럼, 다양한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입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겸손하고 온유한 논의를 통해서, 본질(Essentials)을 추구하는 단일성(Unity)를 도출하고, 비본질(Non-Essentials)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함’(Agree to Disagree)을 통해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에 사랑(Charity)을 놓치지 않는 원칙들을 통해, 지혜로운 중간을 새로운 안들의 도출을 시도한다면, 사회의 공민으로서 무책임하거나 분열적이라고 비난받는 교회에 대한 큰 반전이 되며, 젊은이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근무하는 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적자를 메워주는 공공기관이나 후원단체가 없기에 공립병원으로 볼 수 없고, 수익을 법인에 재투자해야만 하는 법적 원칙을 고려하면 사립병원도 아닌 중간자적인 존재이며, 사회적기업과 비슷한 특성이 있으며,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그리고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 내 직종별 입장은 크게 다르다. 한편으로는

선교단체 같은 미션과 비전을 절반의 구성원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기 원하는 기본적인 보상 욕구도 있기에, 함께 모여 자기 나름의 판단에 근거하여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요구할 때, 이런 요구들을 합쳐보면 항상 10~20% 정도가 부족하다. “받은 것보다 더 일하여 기여하겠다! 기여한 만큼 다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희생하려는 사람들이 상당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다. 구성원 중의 사들만 놓고 보면, 60%는 그리스도인 의사인데, 그중 3분의 2, 약 40%는 가정, 교회, 직장 간의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직장에서의 몰입이 충분치 못하다. 반면에 약 40%의 비그리스도인 의사 중 절반인 약 20%는 직장에 몰입한다. 교회 활동이 없고, 가정 충실성도 부족할 수 있는 중에도 직장에서 보람과 인정을 구한다. 그런데 몰입하는 비그리스도인 의사 중 약 20%는 몰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의사 약 40%를 보며 힘겨워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삶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고, 반대로 가정을 약간 희생하고 신앙에 무심한 비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언제까지 고마워하며 당연시해야 할지도 알 수 없고, 참 어렵다. 다양한 죄인들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에서는,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인류의 칠 대 죄악 중에서, 한쪽에는 탐욕의 우측 줄, 반대쪽에는 나태의 좌측 줄, 그 사이에는 교만의 중간 줄이 삼겹줄로 단단히 꼬여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적절한 이윤을 여러 존재의 목적들을 달성기 위한 도구로 활용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측 줄에 있는 탐욕을 다스리되 어느 정도 관리되는 선 안에서 하고, 개인과 기업 전체의 발전 도구로 선용하는 것이 긴요함을 본다. 이것이 매년 물가와 무관하게 1%대 의료수가 상승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비공익, 비사립 병원의

생존에 절대적인 것을 본다. 예를 들면, 적절한 성과급이 그 한 사례이다. 성과급은 과도하면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만 이것 없이 고정된 급여시스템만으로는 나태와 비효율의 거미줄에 전체가 질식되고 말 것이다. 작은 병원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중심적 개인들을 격려하여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겨운 데 더 큰 규모의 사회와 국가와 세계일 때이라!

주위를 둘러보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또 다양한 정도의 이윤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많게는 ‘다섯 + 다섯 + 하나’를 모두 합한 열한 달란트의 사람에서부터 한 달란트마저도 빼앗긴 무(無) 달란트의 사람이 섞이게 되고, 무(無) 달란트의 사람에게서는 더 가진 자와 비교함과 연관된 나태를 보게 된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강도 만나 다침으로 인해 치료와 간병을 위한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강도 만난 자들’을 돕는 노력과 수고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축적의 소명 달성을 위협할까 하여, 돕는 손길을 주저하는 실질적 탐욕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구성원들의 탐욕 및 나태에 관한 관리, 성장과 나눔, ‘개인선’과 ‘공공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사명으로 명확히 표현되고 추구되는 공동선적이고 사회적인 기업 및 ‘소셜벤처’(social venture)를 만들어 감을 통해,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대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안양샘병원, 지샘병원)의 이사장이자 지샘병원 중앙내과 전문의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업들인 ‘핀케어넷’, ‘샘바이오’, ‘킹스바이오’의 운영자이기도 하다. 순전한교회(이태재 담임목사) 안수집사로도 섬기고 있다.

공동선·공공선 이전에 공공악 반성이 우선이다

이병주 (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도전적인 질문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기독교와 공공선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는 공공선(公共善)을 위한 자리에 있는가? 오히려 공공악(公共惡)을 생산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공공선'에 관한 논의보다 '기독교의 공공악'에 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만과 무지로 인하여 신앙과 세상에 대한 오해와 혼동에 빠지면 거꾸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기독교'를 만들어낸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이분법은 오해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세상을 악하게 만들 수 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간들의 악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몰아내라고 소리 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예수를 믿어 내세의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냉혹하게 공격하고 세상을 이성의 지옥으로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의 세상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다. 권력자들의 불의는 쉽게 용서하면서, 권력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희생자들과 서민들의 외침에 대해서는

도리어 비난하는 냉정한 기독교, 나의 이익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사회의 소수자들과 나그네들을 몰아내는 구호에 열렬하게 반응하는 오늘의 무정한 기독교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독교이며, 무엇을 위한 기독교인가? 정치적 극단주의를 열렬히 지지하면서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을 악몽과 공포에 빠뜨리는 복음주의자(evangelicals)들이 전하려는 복음(福音)은 도대체 무슨 복음의 좋은 소식(good news)이란 말인가?

이것이 21세기 초반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기독교'의 사회적 진상이다. 개인주의적 복음을 추구하는 한국의 기독교는 사회적으로는 거의 파산한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의 사회적 파산, 교회의 사회적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신앙 속에 숨어있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악, 기독교의 공공악이다.

먼저 '개인주의적 복음주의'로 인한 한국교회 신앙의 신학적 비(非)사회성은 기독교의 공공악의 뿌리가 된다. 우리가 배워온 복음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구원의 복음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갚으셨는데, 이 죄인들

은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개인적’ 구원의 논의에는 집단과 사회의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다.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관심에 집중하여 사회와 집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개인적 복음주의는, 신자들을 사회적 정의와 불의의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의 상태에 빠뜨리거나, 사회적 삶의 긴장과 갈등에 대해서 뚜렷한 인식이나 이론이 없는 ‘사회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들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무관심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무지는 ‘정치적·사회적 극단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의 공공약’의 모판이 된다.


다음으로 ‘자기 사랑의 복음주의’로 인한 한국교회 신앙의 실천적 반(反)사회성은 ‘기독교의 공공약’의 충분한 근원이 되고 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자기 사랑이 있다. 하나님 사랑은 초월적인 측면에, 이웃사랑은 공적 질서에, 자기 사랑은 사적 생존에 연결된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신앙은 실상 개인적인 자기 사랑에 매달려 있다.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사랑조차 사실은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반사된 자기 사랑’으로 집중되어 있으니, 자기 사랑의 신앙적 위력은 실로 엄청나다.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에게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매달리는 자기 사랑의 복음주의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적 배신이다.

‘자기 사랑의 기독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면 ‘개인적 자기 사랑’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신앙으로 온건하게 나타나지만, ‘자기 사랑의 기독교’가 집단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면 금방 ‘집단적 자기 사랑’의 국가주의·반공주의 이상숭배, 인종주의 이상숭배의 극렬한

사회정치적 폭력성과 결합된다. 이것이 한국에서 자기 사랑의 태극기와 동맹을 맺은 자기 사랑의 십자가, 미국에서 자기 사랑의 백인 인종주의와 결합한 자기 사랑의 백인 복음주의가 등장하게 된 논리적 필연성이다. 21세기의 세계는 ‘자기 사랑의 복음주의’를 통해서 ‘자기 사랑의 집단적 이기주의’와 정치적·영적 동맹관계를 형성한 반사회적 기독교의 사회정치적 공격성에 경악하고 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이고 신앙적인 악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 우리가 기독교와 공공선, 기독교의 공공선을 논의할 때에 뭔가 짚맛이 나지 않고 조직폭력배 어개의 “차카게 살자”라는 문신의 문구처럼 막연하고 실효적이 아닌 느낌이 드는 것은, 우리의 약점 즉 기독교의 공공약에 대한 회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와 공공선’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는 당위로서의 ‘공공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실로서의 ‘공공약’에 대하여 더 체계적인 분석과 회개의 논의가 선차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FAITH & LIFE**



 글쓴이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이자 27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이다. 서울대 물리학과 학부, 하버드대 법률전문대학원(LLM)을 졸업했다. 현재 평신도 대중단체연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호모유쿠스 : 육해야 하는 인간>, <육하는 기독교, 육먹는 기독교>(평신도의 발견 개정증보판), <기독교와 법에 대하여>, <직장에서 믿음으로 사십니까> 등이 있다.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김종철 (변호사, 어떤~바람 연구소)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는 명대사가 많이 나온다. 그중에 내가 최고로 꼽는 것은 김지원 배우가 구찌인 손석구 배우에게 했던 이 말이다.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거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 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한테?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김지원 배우는 이렇게 말한다.

“죽어서 가는 천국 따윈 필요 없어. 살아서 천국을 볼 거야.”

여기에 기독교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다 들어있다. 우리의 신앙은 사적일 뿐 아니라 왜 공적이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궁극적인 해방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성공이나 건강이나 개인의 경건 같은 사적인 것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벌어질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 없다. 나아가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미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하나님 나라(천국)를 자본주의적인 욕망이 철저히 실현되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은 공공선과 무관한 것이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늘어나는 것

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본다면, 그때의 하나님 나라는 공공선과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노는 나라라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나라라면, 포로 된 자가 돌아오는 나라라면, 눈먼 자가 다시 보는 나라라면, 억눌린 자를 해방되는 나라라면, 차별 때문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일 없이 누구나 모두 곁상을 할 수 있는 나라라면, 결핍으로 배고프지 않은 잔치의 나라라면,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것은 공공선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소망을 가지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주인공 삼 남매의 이름이 차례로 기정, 창희, 미정이다. 이 드라마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희망을 노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까.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가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공공선과는 별로 관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의 태도가 "어차피"가 아니라 "언제까지"라면 말은 달라진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러한 엉망진창의 세상을 눈앞에 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지겹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공공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미리 살 때 기독교의 공공선이라는 말이 가능해진다. 나는 여기서 일부러 하나님의 나라를 산

다고 표현했다. 지난 20년 동안 교회는 세상을 바꾸자는 말을 많이 했다. 나아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향력이 더 많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세상은 전혀 거룩하게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세속적으로 바뀌었다. 세상을 변혁하자고 했지만 교회가 더 세속화가 된 것이다. 나는 기독교가 공공선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미리 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사후세계에 갔다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본 천국을 묘사한 책이다. 그 책의 내용은 한 문장도 동의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책의 제목만큼은 나에게 두근두근 영감을 주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공공선에 기여하려면 그 방법은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려면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살아서 천국을 봐야 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종철

인권변호사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했고, 사법시험 합격 후 라브리 간사(2년), 기독교법률가회 사무국장(4년)으로 일했다. 2011년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을 설립해서 2022년까지 상근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8년 미국무부 선정 '인신매매 근절 영웅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근 기후 위기의 시대에 환경과 농어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어떤~바람 연구소'를 시작했다. 한국 라브리 공동체 이사로도 섬기고 있다.

모두와 더 나은 공존을 위한 '선'하고 '성숙'한 공적 교회, 공적 신앙

김현아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국장)

공공성(public)은 라틴어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즉 '공적인 것'을 어원으로 한다. 그것은 개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서 벗어나 전체를 볼 수 있는 성숙성(maturity)을 의미한다. 또한 '사사로운 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공동체와 관련된 사안이나 활동을 뜻했는데, 영어에서도 'public'이라는 단어는 '사회 내의 공동선'을 의미하는 데 처음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공공성 함양과 실천'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공공대학원에서 공부하고 토론하며 꽤 자주 '은혜를 받았다'. 한국 사회와 세계의 불의와 불평등, 이웃의 고통을 들여다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 평등, 사랑, 평화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성서의 여러 장면과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종교'는 신앙의 경험과 구원의 측면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이며 단독적인 영역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서의 많은 부분에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이 있고, 예수는 '공생애'라는 삶의 흔적을 통해 공적인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이셨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의 경제 개발과 성장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여 개인의 영혼 구원과 천국, 축복이라는 소위 '변영신학'에 몰두했고 이는 많은 신자들의 신앙관, 가치관 형성에 고스란히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민주화 과정

에서 권력에 순응하거나 침묵했을 뿐 시민적 저항과 공론의 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적 영역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식이 잘 나타나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전체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70.8%가 부정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27.0%, 별로 그렇지 않다 43.3%)을 보였고, 한국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과 종교적 신념(교리)가 충돌할 때 어떤 것을 추구할 것 같은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23.6%만이 교회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020년 조사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정직하지 못함', '배타성'을 꼽았다 이러한 응답은 시민들이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과제 1순위로 '이기주의'를,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사회 공동의 이익보다 교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적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공공신학은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위치와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설명한다. 또한 실제적인 방법으로서 교회 안에서 공적인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공론의 장 형성과 교회 밖 영역과의 소통과 참여를 촉구한다. 하지만 대형교회의 목

회자 세습, 휘황찬란한 교회 건축, 목회자 납세 거부, 성 소수자와 타종교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에 대한 너그러움, 목회자 청빙과 은퇴 과정에서의 부조리 등 교회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사안들에 '공적인 선한 영향력과 소통'은 어디에 있는지, '공동'의 '선'은 어디에 있는지 묻게 된다. 위 신되도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지적한 대로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기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등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일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위기를 넘어서기가 힘들다.

시민사회적 공공성을 '공동의 선' 개념으로 신학화하고자 하는 공공신학이 근거로 하는 성서 본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각 사람에게 자원과 은사를 주심은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함"이다. 또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 민중에게 광야에서의 생활과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해 공동체적 삶과 규범에 대해 가르치셨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 곳곳에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개인적, 제도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각자도생, 경쟁 사회, 승자독식 제로섬(zero-sum)사회가 된 지 오래이다. 한정적이고 고갈되는 자원을 서로 갖기 위해 '너는 너, 나는 나', '나만 (패자가) 아니면 돼'라는 식으로 소외와 배제를 야기하고 패배자와 빈자를 양산하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과열 경쟁의 물결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듯 함께 흘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본과 힘이라는 우상과 거짓 메시지에 저항하는 신념이자 삶의 양식으로서 공공선의 가치는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이자 꽃대일

수밖에 없다. 나누고 나누어도 모자라거나 사라지지 않는 가치, 나눌수록 오히려 전파되고 불어나는 가치를 진짜 값진 것으로 여기는 태도와 실천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범 사례로 더 많이 들려져야 할 것이다. 나의 주림과 고통이 해결되었을 때 선불리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이웃의 주림과 고통을 함께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을 은혜롭게 찬양할 수 있기를, 그 과정에 나에게 있는 자원과 은사를 공동체에 내어놓는 '선함'과 '성숙함'이 있기를 기대한다.

공적 신학, 공공선이 강조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이웃과 세상에 영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2024년 9월, 로잔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그룹에서 '복음전도'와 '사회 선교/공공선의 실천'을 각각 양쪽에 두고 둘 중 우선되는 것은 당연히 '복음전도'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이분법적 사고와 단순화의 오류로 성서와 예수의 가르침을 매우 협소하고 납작하게 만든 것이다. 무엇이든 부르던지 상관없이, 공적 신학, 공공성, 공동선의 동기와 목적은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실천이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 전도의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 교회의 공공신학 실천, 그리스도인들의 공적 신앙 실천을 통해 더 많은 이웃이 교회와 함께 하고자 하고 사회와 시민들이 교회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FAITH & LIFE**



 글쓴이 김현아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국장이다. 경희대 공공대학원에서 시민사회NGO학을 공부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청년의 권리와 목소리의 확장을 도모하는 일을 하고,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상식적인 교회를 바라는 기독교시민활동가이다.

순수한 섬김을 통한 공적 봉사와 기쁨

이상욱 (경북대학교회 담임목사)



경북대학교에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 무료진료 행사가 매 학기 열린다. 2014년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학교병원 신우회가가 이 행사를 처음 제안하였고, 경북대 기독교센터, 경북대 기독교수회, 경북대 인근 교회들이 이것을 수용함으로 시작되었다. 각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경북대 의료선교회'를 조직하고 경북대 기독교수회 회장을 이사장, 경북대병원 신우회장을 실행위원장으로 세웠다. 그리고 실무팀을 조직하여 의료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캠퍼스 유학생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경북대 의료선교회는 의료봉사를 통하여 이 선교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해가 거듭되면서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났으며, 이제는 한국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들도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유학생들이 행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된 것이다. 나아가서 무료진료를 경험한 유학생들을 통한 세계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이 일을 위하여 내년 1월 우간다 메케렐레 대학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 섬긴 무료진료 내용을 스케치해 본다. 11월 4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 경북대학교 병원 신우회 회원들이 경상대학 건물에 모여든다. 직원의 안내로 1층 강의실과 룸을 열고 테이블 정리를 시작한다. 10시 30분 '국제정음봉사단' 경북대학교회 기독교센터 생활관 학생들이 한 트럭 가득 실어온 테이블과 의자, 바자회를 위한 옷과 생필품, 현수막, 안내를 위한 자료들을 쏟아 놓는다. 11시 주변교회 교인들이 속속 모여든다. 바자회 물품을 펼치고 다과를 준비하고 한복 체험장과 어린이 놀이터를 준비한다. 12시 봉사자들이 김밥을 나누어 먹는다. 13시 의료진들이 들어온다. 안내 부스가 마련된다. 이어 모든 봉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이제 준비 끝. 13시 30분 유학생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잔치가 시작된다. 다과, 작은 음악회, 의료진료, 선물

수령, 바자회 등. 모든 봉사를 마치고 기독교수회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하고 귀가한다. 경북대 유학생 무료진료 행사는 매 학기 시행되며 이번이 14번째이다. 이번에는 49개 나라 220명의 유학생이 참여하였으며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섬겼다. 유학생들이 행복해 한다. 참여한 모두가 온종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다.



경북대학교 유학생 무료진료 행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대학의 국제교류처에서 모든 유학생에게 안내 메일을 보낸다. 공신력이 있는 홍보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행정 조치를 한다. 진료를 받은 유학생들의 종교를 보면 무슬림이 가장 많다. 그리스도인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알지만 어느 누구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학 직원이 감동을 받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14회째를 맞은 경북대학교 무료진료 행사는 경북대학교 당국과 유학생 그리고 참여하는 봉사자 모두가 좋아하는 일로 정착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몇 가지 산이 있었다.

첫 번째는 연합이다. 이 행사는 여러 교회와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초기에는 교회 현수막과 홍보물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 교회 간에 미묘한 긴장

이 흘렀다. 리더들이 숙의하여 교회 이름이 적힌 것들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후에는 순수하게 연합하는 길이 열렸다. 참여하는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은 것이다. 두 번째는 전도이다. 기독교인들이 봉사할 때 늘 따라붙는 말이 있다. “이것이 전도에 도움이 되느냐? 이 행사를 통해 몇 명이나 교회에 출석하느냐?” 무료진료 행사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초기에는 선교단체와 교회에서 전도지를 들고 참여하였다. 어떤 이들은 진료대기를 하는 학생에게 전도했다. 어떤 이들은 행사장 주변에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다. 무료진료를 한다는 공적인 안내를 받고 참여한 학생들이 전도를 당하게 된다면, 대학 당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자칫하면 무료진료 행사를 빙자한 전도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이번에도 리더들이 숙의하였다. 전도지를 다 수거했다. 무료진료 행사를 통하여 외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나중에 교회에 초대할 수 있지만, 행사 중에 전도하는 것을 금하였다. 이런 산을 넘었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유학생 무료진료 행사는 공신력을 얻었다. 대학 당국도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유학생들도 편하게 친구와 함께 진료에 참여한다. 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내 교회 이름을 뺀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봉사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다. 이제 경북대 유학생 무료진료 행사는 캠퍼스 안에 공적인 일이 되었고, 이 봉사를 통하여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쌓여간다. 이런 공적인 봉사는 복음의 밭을 일구는 것임을 확신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이상욱

경북대학교 전담목사이다. 경북대학교 독문과와 장신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26년간 경북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경북대 기독교센터 생활관, 경북대학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빈곤층 구제, 그 너머를 바라보자

탁장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학부 시절, 삶에서 학문과 신앙은 쉽게 일치되었다. 전공인 사회복지학은 가난하고 취약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개신교 신앙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일치감은 모든 학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에 참 감사한 것이었다. 당시 나는 내가 선택한 학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을 강화할 수 있었다.

대학원 생활에서 학문과 신앙은 부딪쳤다. 각종 문제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다루는 사회과학을 공부할수록 개인의 죄와 성화를 강조하는 신앙이 부조리하게 느껴진 탓이다. 이 문제는 특히 빈곤을 연구하는 내게는 더 곤란한 것이었다.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는 빈자의 결함을 빈곤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빈곤 문화론’을 1960년대에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빈자를 단죄하고 빈곤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이유로 지탄받았고, 이후 학계에서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접근은 급격히 쇠퇴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개인에 대한 계도는 지극히 당연한 반면 구조적 문제는 무관심의 대상 혹은 부정적 취급의 대상이었다. 믿는 바와 배우는 바가 충돌하며 내면에서 혼란은 가중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눈이 뜨이자 교회의 수구적 태도

는 더는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다.

이후 수년간 방황이 이어졌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바는 신앙을 학문에 맞추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접한 해방신학을 필두로 소위 ‘진보적 신학’에 매료되었다. 가난을 사회적 억압과 연결하는 점, 빈자를 주님의 우선적 사랑의 대상으로 높이는 점이 좋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형성된 온라인 예배에서 진보적 설교에 입문한 나는 오프라인 예배의 재개 후에는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방문하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기는 그간 교회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휴머니즘을 경험한 시간이었다. 투쟁 현장을 성전 삼아 가난한 자와 연대하고 구조 악에 함께 저항했던 활동은 성서를 발로 읽는 크나큰 배움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풀리지 않았다.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자 들머간 쪽방촌에서 마음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진보적 교회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보수적 교회의 쪽방촌 점유는 흥미로웠으나, 가난의 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해석하는 교회가 정작 빈민가에 부재하다는 점은 내게 짙은 허무

감과 실망감을 안겼다. 결국 나는 쪽방촌에 거주하면서라도 가난에 대한 의미 있는 설교를 듣기 위해 주말마다 먼 동네의 교회에 가야 했다. 학문과 신앙을 조화시키려는 끈질긴 노력이 만들어낸 이 역설에 나는 지쳐갔다.

보수적 교회들의 사회선교에 대한 오랜 참여관찰 역시 심란한 과정이었다. 단 그들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빈자를 섬기는 점은 존경스러웠다. 쪽방촌의 교회들은 분명히 빈자에게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다. 굶주린 이를 먹였고, 헐벗은 자를 입혔으며, 환자를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다. 옆에서 지켜본 구제의 과정은 쉽게 비판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감이 상당했다.

유감스럽게도 그 무게감이 빈자에 대한 각종 통제를 정당화했다. 특히 가난하다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주 선포되었다. 빈약한 나눔과 생색내기, 후원을 위한 사진 촬영, 자존심을 훼손하는 설교, 쪽방의 바퀴벌레 떼를 성령의 비로 비유하는 간증, 열악한 쪽방도 마음만 먹으면 천국이라는 위로답지 않은 위로, 상대가 굶신대지 않거나 개종을 거부하면 여지없이 수행된 악마화, 돕는 이를 영웅화하고 받는 이를 열등한 존재로 구분하는 빈민가 투어 행위까지. 지난 5년의 연구 과정에서 나는 흔히 '선한 것'으로 불리는 구제에 교묘하게 '악한 것'이 섞여 있음을 보았다.

나를 넘어 이웃과 타인에게 나아가려는 방향성은 부인할 수 없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들은 모두 거기까지만 말한다. 막상 그곳에 발을 내디딜 때 경계해야 할 지점들은 말해주지 못한다. 그러면 빈곤층 구제는 그 자체로 숭고한 것으로서 인간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로 격상될 뿐이다. 반면 나는 그러

한 설교를 따랐을 때의 이면을 경험했다. 고맙지만 수치스러운, 도움이 됨에도 기분 나쁜, 그래서 의존하기 싫지만 결국 의존하게 되는, 쪽방도 천국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에 생존을 위해 아멘을 외쳐야 하는, 빈곤층 구제의 잔혹하고 어두운 이면을.

역설적으로 학문과 신앙은 일치되어갔다. 빈자가 아닌 돕는 자를 각성시키는 신앙이 사회문제로서의 빈곤을 줄이려는 연구 방향과 접합되면서다. 적어도 지금의 나는 빈곤층 구제 행위가 아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악을 주의 깊게 성찰하는 행위가 공동선에 더 기여한다고 믿는다. 이는 구제를 중단하자는 것이 아닌 행동 너머를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성찰 후에도 빈자를 돕거나 연대하는 나의 행위가 여전히 상대에게 도움과 피해를 함께 줄 수 있다는 겸손한 인식, 즉 선과 악이 생각보다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금이다. 그럴 때 선을 행한다는 자기 확신으로 가득한 돕는 자의 교만은 낮아지고, 최악된 존재로 낙인찍힌 빈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선함은 비로소 발견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누가복음 3:4-5). **FAITH & LIFE**



글쓴이 탁장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학부, 석사)한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 빈곤, 지역사회복지, 주거복지다. 현재 박사학위를 위해 쪽방촌의 빈곤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빈자들의 삶이 나아질 때까지 연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저서로 <누가 빈곤의 도시를 만드는가>(2021)가 있다. 서울대 기독교 대학원생 독서모임 멤버이다.

조주희 성암교회 담임목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소재한 성암교회(예장 통합)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공공선(Public Good)과 공동선(Common Good)을 활발하게 실천하는 교회로 알려졌다. 교회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말씀에 따른 섬김을 모범적으로 실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여러 조사에서 최근 한국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의 기대와 영향력이 감소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공공선·공동선 참여는 어떻게 가능할지 조주희 담임목사님과 함께 그 혜안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인터뷰어 : 오민용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일시 & 장소 : 2023년 11월 15일(수), 성암교회 사무실
사진 & 정리 :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오민용 목사님 안녕하세요? 성암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공공선(公共善)·공동선(共同善)실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은 현재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로도 섬기고 계시지요. 그동안 교회가 섬겨온 대표적 사회봉사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우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주희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선·공동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니 교회는 세상

도 사랑해야 하고 본질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성암교회는 우선 지역사회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지 또 전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사했구요, 내린 결론 중 하나는 “교회가 지역의 아이들을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민용 이렇게 성암교회가 남다르게 세상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선·공동선 활동을 역동적으로 하게 되면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주희 첫째, 제가 어렸을 적 교회 경험입니다. 농촌에서 초등학교까지 자랐는데요, 당시 교회에 대한 기억은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목회자도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동네일도 많이 하시고 주일과 수요일에만 교회 일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할 정도로 늘 마을의 일원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도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니 섬처럼 고립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회사도 물건 하나 팔려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 기여를 통해서 이미지를 높여서 물건을 팔아먹지요. 따라서 교회도 지역사회를 선교적 대상으로 본다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 또 세상을 향한 태도가 우리는 기록한 영역이고 저쪽은 완전히 타락한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이분법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둘째, 성암교회가 예배당 옆에 빌딩을 하나 지으면서 이것을 지역사회도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에게 구체적 컨설팅을 받아서 시작했기에 아무래도 좀 더 전문성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민용 성암교회의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밀도가 남다르고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조주희 큰 기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개발 자체가 지역의 욕구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잘하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따라서 잘해보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어도 생각도 세상과 분리되어 있기에 아무래도 다리 역할을 해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성암교회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전문가를 통해서 개발도 하고 진행도 하자.” 그 때문에 더 체계적인 사업들이 개발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민용 최근 ‘한국 갭업’이나 ‘지앤컴 리서치’ 등 전문 기관의 종교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 개신교는 타종교에 비해 남다른 포교 열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영향력이나 그 선호도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조주희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모습과 세상에 대해 닫힌 사고방식에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인데 세상에는 폭력적으로 들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결국 개신교가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만 생각하는 집단이구나”라는 느낌을 주어서 고립되고 소통이 힘들었던 측면이 가장 강했다고 보고요. 둘째로, 여기에 더 불을 지핀 것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비윤리적인 것까지 보태져서 이 두 개가 결합되고 구조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윤리적 요소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이렇게 신뢰를 잃다 보니 세상이 개신교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단은 무조건 편견을 가지고 좋지 않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사회봉사와 관련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가령 “장학금 주겠다. 무엇을 도와주겠다. 또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러한 이야기는 섬김의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시혜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제 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아파하면 그 아픔 속에 함께 있고, 또 그걸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 문제를 우리가 풀어주겠다”라는 태도는 결과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보지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함께하시며 섬기셨지 무슨 조직을 만들어놓고 “내가 능력 있으니까 해줄게.” 그런 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섬김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오민용 우리 사회는 이전에 비하면 많은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른바 국가복지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봉사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조주희 저는 차별점 이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 두 가지 대상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지역의 주민들, 즉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국가 조직이든지 행정조직이든지 NGO든지 복지기관 등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들과 협력하는 문제도 교회에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히 해온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설득해서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늘 저항이 있어요.

특히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다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지금은 교회를 일으켜 세울 때지 다른 것을 할 때는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 비본질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학적 전환과 전략이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가복지와 교회의 사회적 봉사의 차별성은 따뜻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복지가 확장되면서 좋은 점이 많지만, 허점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요. 도울 때 제도적 범위 안에서 업무적으로 소화하기에 상대적으로 차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야말로 성경에 기초한 따뜻한 복지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닌가, 국가복지를 보완해서 따뜻한 온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섬김 방향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민용 성암교회는 저소득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해서 즉 '방과 후 교실', '다섯 콩 작은 어린이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섬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보람과 열매가 있으셨는지요?

조주희 종종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 학교가 몇 명 늘었어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있는 질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섬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직면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과 배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까지 경험했던 사랑과 배려가 지금까지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지역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뭐 하는 걸 했는데 그때 참 좋았다. 행복했었다.” 이거 하나라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실 선물을 제대로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인사받을 때 최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니기에 이런 사랑과 배려가 오히려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어떤 할머니는 “우리 손자 힘들었는데 여기 다녀서 좋았어요. 교회는 십일조를 하는 거라면서요.”라며 천 원짜리 몇 장 넣으셔서 가져오셨는데 큰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민용 성암교회 '바오밥나무 카페'는 교인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듣고 싶습니다.

조주희 아주 간단합니다. 지역사회가 해달라는 것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를 위한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사회가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까지일지 전문가들과 협의 과정에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첫째, 교회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지 않는다. 교회가 우리 거니까 우리 필요를 따라 마음대로 쓰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셋째, 교회 모임을 이유로 시간을 변경시키거나 선점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를 시작할 때부터 지난 15년 동안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민용 지역사회 독거노인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시고 계시는지요?

조주희 우리 교회가 독거노인을 섬기는 봉사를 ‘안부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 독거노인이 꽤 있으세요.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도 상당 기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래서 은평구청에서 준 명단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려서 식사는 하셨는지, 편찮으신 데는 없는지 확인했고요. 식사가 안 되었을 때는 새마을 부녀회, 푸드뱅크 등에 연결해 드렸어요. 필요하면 병원도 연결해 드리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행히 국가가 손만 갖다 대도 소방서로 직접 전화가 걸리도록 장치를 해놨지요. 그래서 독거노인들의 필요를 다시 파악해보니, 밥은 해 먹겠는데 반찬 만들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일주일 동안 드실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역을 약 20명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민용 교회를 통해서 이토록 적극적인 공공선·공동선의 실천,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이끌어 오시면서 언제 가장 큰 가치와 보람을 느끼셨는지요?

조주희 교회가 더 행복해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좀 할 일을 하는구나”라는 나름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 교우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상비 겨우 맞추어내는 교회인데도 많은 비용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는데, 이는 모두 성도님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사회에 하는 일의

가치를 교인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할 사람이 잘 모집이 안 되는데 오히려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모집이 더 잘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그동안 교회답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인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보람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가 함께 일하자는 얘기를 참 많이 해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해도 너네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데?”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지금은 은평구청에서도 의식이 많이 전환됐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되었는데, 저는 그것이 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민용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공공선·공동선 참여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평소에 주시고 싶으셨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주희 저는 신학자도 이 방면에 탁월한 전문가도 아니라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내 삶은 나로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기에 내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의지로 사는 것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들에게 마음을 주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 마음이 커지면 일도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 시절부터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고 이분들은 나의 삶에 일종의 에너지이고 또 에너지를 나누어야 할 사람들이구나 하는 대상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따라서 세상을 움직이겠다가 아니라 세상에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사고를 늘 가지고 살아가시면 자기 삶의 존재 가치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FAITH & LIFE**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학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윤현준 (송실대 기계공학부 교수)



내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 정회원이 된 날은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생 시절 가장 큰 삶의 고민은 “과연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교회 건물 너머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협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만 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 등의 질문을 던지며 여러 기독교 세계관 서적들을 읽었으나, 정작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이하 동역회)의 존재는 미처 알지 못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후연구원으로 일하던 어느 날, 서울대 ‘기대모’(기독교대학원생 모임)를 함께 섬기던 박사과정의 이경건 형제님(현 미국 조지아대 박사후연구원)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세계관 청년 오픈 세미나’를 했었는데, 행사 포스터 왼쪽 위 끝에 적혀있던 동역회 홈페이지 주소를 우연히 본 게 가입 계기였다. 이를 통해 당시 동역회 사무국장이셨던 석종준 목사님(현 서울대 캠퍼스 선교사)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2019년 2월에 동역회 실행위원과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추천되면서 본격적으로 동역회와 발걸음을 함께 하게 됐다.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해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고군분투하는 45세 이하 약 35명의 박사님과 ‘그리스도인 소장 학자 모임’을 함께 시작하였고, 2023년 10월부터는 김태황 교수님(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의 권유로 기독교학문연구회 총무로도 섬기게 되었다.

내가 학자로서 기독교 세계관적 학문을 꿈꾸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한다. “배워서 남 주자”라는 비전은 품었으나 구체적인 소명의 자리가 어딘지 막연했던 2008년 여름, ‘크리스천 과학기술인 포럼’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 설계 아카데미’에 우연히 참가해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접하게 되었고, 이는 지적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학문 창치기로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내재한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자연과학은 물리법칙에 부여된

창조주의 숨씨에 감탄하는 것이며, 인문과학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인 인간 본연의 모습 및 사회의 규범과 공동체 조화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가져야 할 학문적 신실함을 일깨워 준다. 이는 참된 진리를 망각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대해 선지자적 반(反) 시대성으로 저항해야 할 동역회의 사명이기도 하다.


리처드 마우(Richard J. Mouw, 1940~현재)가 저술한 책 제목인 〈He Shines in All That's Fair: Culture and Common Grace〉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아름다운 것 가운데 빛나신다. ‘일반 계시’(general revelation)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 학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흔적과 성품, 뜻과 생각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인 셈이다.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 1913~1988)는 〈The Bible and the Future〉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인간의 문화적 산물들도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화(질적 갱신)되어 우주적인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설교했다. 따라서 필자도 캠퍼스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로서, 죄로 인해 왜곡된 공학을 다시 창조 원형의 모습 그대로(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답도록)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며, 공학을 가장 공학답게 가르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한 명이 꾸는 꿈은 잠에서 깨어나면 기억에서 지워지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한다. 필자는 동역회와 더불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싶다. 다양한

전공의 그리스도인 학자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복음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함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필자를 동역회 일원이라는 복된 자리로 초대하신 이유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는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 각 전공 영역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동역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끝으로 중국의 정치가이자 의사였던 쑨원(Sun Wen, 1866~1925)이 남겼던 “소의는 육체의 병을 치료하고(小醫治病), 중의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며(中醫治人), 대의는 사회와 국가를 치료한다(大醫治國).”라는 말에서, ‘의’(醫; medicine) 대신 ‘공’(工; engineering)을 대입해 봄으로써 글을 맺으려 한다. 나는 연구를 통해 정립한 공학 지식이 인류의 불멸과 신성(神性)을 지향하는 〈호모 테우스〉(Homo Deus)에 일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길을 비춰주는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갈 5:6)의 삶을 소망한다. 사전적으로 ‘나누다’는 영어로 ‘divide’와 ‘share’의 뜻을 모두 지닌다. 공학 지식을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고(divide) 기쁨과 희망을 공유(share)함으로써,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인 학자가 되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 **FAITH & LIFE**



 글쓴이 윤현준

송실대 기계공학부 조교수이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 전공으로 박사학위(Ph.D)를 받았고, 미국 조지아공과대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서울 정릉교회(예장 통합) 청년이며,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신앙과 삶〉 편집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공학 영역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마 6:10) 역사에 참여하는 증인의 삶을 꿈꾼다.

은혜와 고난,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박세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



나는 베트남 MK(Missionary Kid)이다. 선교사님이 신 부모님을 따라 20년 전 베트남으로 가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 땅을 잠시 떠나 있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정체성은 여전히 베트남 MK이다. 대개 선교사 자녀를 생각할 때 믿음의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온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비자발적으로 선교지에 가게 된 MK 중 꽤 많은 수는 현지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등 여러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 다행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MK로서의 삶을 잘 즐기고 누려왔다. 부모님과 함께 사역지를 따라다니는 것은 내게 큰 기쁨이었다. 선교지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채우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누려왔던 은혜들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왔고 받은 은혜들을 나의 신앙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교회에 가면 듣게 되는 아빠의 설교도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빠의 잔소리처럼 들려지곤 했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공부를 위해 친한 친구와 영어 단어를 외우던 중, 친구가 한 단어를 가리키고는 “야 이거 딱 너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

는다. ‘신실한 척하는’ 혹은 ‘위선적인’이라는 의미의 ‘sanctimonious’라는 단어였다. 당시 나는 뒤통수를 한 대 세계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에게 나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복음의 참된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지 못했던 내 모습은 바리새인과도 같았다.

20살이 되어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대학 진학을 위해 홀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나의 신앙 여정은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에텐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누리기도 선악과를 따먹으려 했듯, 이전엔 필수로 여겨졌던 신앙생활을 나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만했던 나에게 계속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나에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이시며 편히 쉴 곳을 허락하셨다. 더욱 감사한 건 남서울교회에서 전도폭발훈련을 받으며 복음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한량없고 깊은 길 없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이따금 자격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과분하게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최근 욥기를 묵상하며 '무죄한 자의 고난'에 대해 생각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요즘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아픔을 바라볼 때 더욱 그렇다. 2022년 2월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시 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픔과 두려움은 남의 일로만 여겨졌다. 물론 내가 지낸 모스크바에는 실질적 위협은 없었지만, 전쟁 당사국에 살고 있던 내게 전쟁은 현실로 다가왔다. 다행히 혼란스러운 중에도 내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전쟁으로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한 비통한 마음에 한동안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들이 그런 고난을 받을만한 죄를 범했는가?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장기화되었지만 그동안 모스크바의 상황은 전쟁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속에서 이내 전쟁을 잊고 살아가는 내 모습과 그렇지 않은 현실을 떠올리며 괴리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러시아의 국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때만 해도 나는 왜 양쪽 국민 모두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구나."(욥 12:6)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고 몸에 병까지 얻은 욥의 탄식이다. 욥이 당한 고난들은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욥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최

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세상은 저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선과 악을 구분 짓고 악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만 바쁘다. 욥기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 보응하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제까지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앞으로 고난을 주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미성숙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기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자는 말이 아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마땅히 하여 믿음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학기 내가 새로 입학하여 공부하게 된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구성원은 70% 가량이 외국인으로 이뤄져 있다. 외국인 동기들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가리켜 'church boy'라고 부른다. 'sanctimonious' 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닌 이제는 진실된 'church boy'로서 살아가길 소망한다.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성령을 의지하여 철저히 겸손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내길 진심으로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박세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과정에서 동남아지역학을 전공하고 있다. GP 선교회 소속으로 파송된 베트남 선교사 자녀로서 13년 동안 베트남에서 지내오다가 귀국하여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에 입학해 공부했고 지난 2월 졸업했다. 현재 남서울교회에 출석하며 초등2부 찬양교사 및 다문화사역부 간사로 섬기고 있다. 서울대 기독교대학원생 북클럽 멤버이다.

영적 예배와 합당한 삶

우재석 (충남대 수학과 학부생)



목회자 가정에서 삼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 부터 매일 큐티로 말씀을 가까이했다. 학업으로 지친 나의 마음에 성경은 크나큰 위로가 되었고, 성경 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소망이 되었다. 이러한 신앙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특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묵상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며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이 정답을 많은 섬김을 통하여 찾으려 하였다.

올해 여름방학 교회 청년부에서 필리핀으로 비전트립을 가게 되었다.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 순수하게 웃는 아이들과 여러 음식과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선교사님 가정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많은 사람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서서히 회복시켜 주셨다. 섬김의 사역이 일로 다가왔던 나에게 다시금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 특히 ‘부에노’ 지역의 학교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 학생들과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

렸는데, 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고백을 하는 것을 보며, 나는 너무 편하고 배부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도전을 받았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때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번 비전트립에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은 후로 여름방학의 모든 사역은 굉장히 순탄하게 흘러갔다. 교회 각 부서 수련회 및 SFC 미자립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소망을 가지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구성원 각각의 나이와 모습, 그리고 하는 일이 같진 않을지라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하나 된 믿음, 하나의 신앙으로 조직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렸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꼈다. 그리고 지난 학기에 불평, 불만이 많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리오”라는 고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담대하게 세상으

로 나아가자는 다짐을 하며 과거에 답하기를 미루어 왔던 고민들을 하나둘 상기하였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과제일 것이다. 과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삶은 무엇일까? 나는 그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되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여기서 ‘영적 예배’는 ‘spiritua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reasonable’, 즉 ‘합당한 예배’를 의미한다. 그러면 이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 로마서 12장을 이어서 살펴보자. 바울은 13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14절에서 사회에서의 관계, 15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로마교회에서는 바울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을 더 큰 보상으로 약속하셨다. 로마교회는 땅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꿈꾸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는 목상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삶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회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내야 한다고. 예배란 형식과 감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예배받기를 원하신다고.

공공선과 공동선을 실천해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사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각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합당한 예배, 즉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자비를 베풀며(미 6:8), 평화를 위하여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고 창조생태의 보존을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것 등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의 삶을 드러낸다면 공공선·공동선의 실천은 자연스레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은혜받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것에 그치는 예배는 쉬운 예배이다. 다른 사람을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려고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아내고, 교회 안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하여 대가를 포기한 고대 로마교회 성도들의 삶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하여도 굴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였던 로마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에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마땅히 해내는 그리스도인 될 수는 없을까? 나아가서 우리는 나 혼자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사고를 넘어,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운동하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실현해내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FAITH & LIFE

글쓴이 우재석



충남대학교 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다. 현재 충남대 기독교생연학회 회장, 선교단체 SFC에서 교육영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회는 대전 한밭교회(예장 고신) 청년으로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다.

분주한 직장인에서 평신도교회로

박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선임연구원)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기독교 중창단으로 활동하였고, 대학생이 되어서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훈련을 받아 수원지구 대표단으로 섬기기도 하였다. 이처럼 감사하게 좋은 신앙의 터와 믿음의 선배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다.

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하여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했다. 그곳에서 KIC(KAIST International Chapel)를 알게 되었고 해외 캠퍼스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나, 박사 학위를 받고 진로에 대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되었다.

회사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으나,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적응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일들이 부여되고, 조직개편은 반복되고 업무 상황이 계속 변했기 때문이었다. 회사에서 업무를 잘 수행한다는 것과 역량을 겸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분주한 삶이었다. 그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변동과 금리 인상 등의 사회적인 이슈로부터도 자유로

울 수가 없었다. 이것들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당장의 현실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에 두 자녀를 얻게 되었다. 자녀를 얻게 되어 매우 감사하였지만, 그 기쁨과 비례하여 삶은 더욱 분주해졌다. 회사에서의 생활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육아로 삶은 가득 채워졌다. 여유가 생기게 되면 부동산과 채테크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삶에 대해 누구도 비난하지는 않았고 잘못된 것은 없어 보였으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사명은 점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주변의 상황을 보더라도 비슷하였다.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과 육아로 족히 5년 이상은 사역에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가장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청년의 시기에 사역으로부터는 가장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한 비전에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시작하겠다는 것은 기약 없는 미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지금 시

작 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각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전까지 나에게 주어진 비전은 해외 캠퍼스 선교였고, 그 비전은 점차 평신도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 과정 가운데 대학원 시절부터 약 10년 이상 함께해온 KIC가 있다. 이 KIC는 현재 충남대 국제교회와 연합하여 KCIC(KAIST-CNU International Chapel)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이다. KCIC에는 담임목사가 없다. 그리고 매 주일 설교자와 찬양인도자 및 찬양팀이 다르게 구성된다. 또한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더불어 교수님들과 일부 학생 리더들이 설교한다. 이러한 평신도교회의 특성을 통해 많은 유익을 경험하게 되었다.

먼저, 끊임없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KCIC 초기사역에서 교회 정체성에 대한 많은 도전을 받았다. 이 시기를 통해 교회에 대하여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다. 제도권 안에 있지만 하면 건강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제도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한다. 평신도교회의 특성상 항상 교회 정체성에 대해 안팎으로 도전을 받기에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된다.

두 번째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모임의 형태와 예배의 형식을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예배와 교제 및 성경공부에 관하여 지체들의 필요가 있는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교단의 목사님과 다양한 지체들이 설교와 찬양

인도를 하기에, 다양한 신앙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신앙관을 보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기에, 모두 복음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에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KCIC의 재정과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올해 3월에 'KCIC 동탄지부'라는 평신도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에는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변에 많은 지역교회가 있지만, 지역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도움과 복음이 필요한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한다. 이 글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KCIC 동탄지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공동체가 되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린다. 내가 탁월하기에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다 보니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이 공동체를 이끄실 것을 믿는다. **FAITH & LIFE**



글쓴이 박대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선임연구원이다. 경희대학교 전자전파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전에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했으며, 올해 하반기에 KETI에 합류하여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여정

김시내 (음악치료사)

“어떻게 음악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에서 시작된 중학교 시절 고민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나는 현재 장애 유무나 성별, 직업,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음악을 통해 공감하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음악치료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고3 때 처음 생긴 음악치료 학부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다양한 음악치료 기법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중에서도 ‘음악 중심 음악치료’인 임상적 즉흥연주에 매료되었다. 이 음악치료는 이른바 NRMT(Nordoff-Robbins Music Therapy)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치료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내담자의 감정, 분위기, 표정, 행동들을 오직 음악으로 읽어주고 음악으로 관계를 맺는다. 즉흥연주를 통해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음악을 ‘경청’하고 스스로 ‘도전’하게 함으로써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치료법에서 주장하는 철학의 핵심은 “모든 사람에게게는 ‘음악을 하고 싶은 본능’(core musicality)과 창조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

상을 따라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모습과도 너무나 닮았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음악치료의 철학을 가진 음악치료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음악치료를 선택했고 먼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해주고 싶었던 마음에서 비롯된 열정은 대학원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인턴을 마치며 졸업할 때 즈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흔들었고,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군이 사람을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나는 열정도 비전도 잊어버린 채 그저 좌절하게 되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나는 어느 곳의 영유아 음악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암흑 같은 광야의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 그 직장에서 내가 들은 피드백들은 너무나 아픈 말들의 연속이었고, 나는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제발 오늘도 살려주세요”라고 속으로 반복하며 버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우 버티며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일들과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기에 마침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의 몸과 마음은 모두 무기



력해졌고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라고 하나님께 기도 하면서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상황을 통해 다시 음악치료의 길을 열어주셨다. 나는 결국 음악치료를 공부한 지 자그마치 10년 만에야 드디어 기다리던 NRMT 훈련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음악치료사로서 취업의 길도 열어주셨다. 특별히 올해 여름에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손길의 도움으로 미국 뉴욕대학교(NYU)에서 진행된 음악치료 워크샵에도 다녀오게 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도 회복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뉴욕에서 지낸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음악치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되살아나 다시 꿈꿀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음악치료사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저 기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나는 내담자를 만나 음악치료를 진행하고 수퍼비전(Supervision)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 안에 깊게 배어있는 여러 상처,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무기력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치유해주셔서 나의 경험과 감정들을 더 풍부하게 해주셔서 내담자들을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자신이 없었던 나는 점차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영유아부터 초중고 학생, 성인, 노인까지 다양한 대상들을 만나면서 정말 한 발자국씩 성장할 수 있게 하였고, 음악치료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며 음악을 통해 치유의 과정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 음악치료사들과의 피드백을 온전히 수용하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며 감사도 회복되었다. 앞으로도 음악치료사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음악을 통해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본래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시애

음악치료사이다. 한국침례신학대 교회음악과 음악치료전공으로 학부를 졸업했고, 숙명여대 음악치료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NRMT(Nordoff-Robbins Music Therapy), 음악중심 음악치료 훈련과 정과 함께 음악치료사로서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내담자들을 음악으로 만나며 활동하고 있다. 성남 상담원침례교회 청년이며 주일학교 교사 및 주일예배 반주자로 섬기고 있다.

의료선교의 역동성이 일으킨 감동의 영화 - 임준현 감독의 <아픈 만큼 사랑한다>(2019) -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의료선교 다큐멘터리는 장르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기독교 영화는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다. 과거 기독교 영화가 주로 드라마 장르를 위주로 제작되었다면 최근의 기독교 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서 2023년까지 약 14년간에 걸쳐서 총 37편의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반상영 방식으로 극장 개봉을 한 반면, 같은 기간에 극장 상영을 이룬 한국의 기독교 극영화는 불과 4편에 불과했다.

매우 놀라운 점은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다루는 소재의 상당수가 선교사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서도 의료선교사들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장르로 예측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풍부한 의료선교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역현장은 눈물과 기적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의료선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는 <울지마 톤즈>(2010)를 시작으로 <소명3:히말라야의 슈바이처>(2011)에서 새롭게 빛나는 듯 보였다. <소명 3: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는 세브란스 출신 1호 선교사인 강원희 선교사의 네팔 오지 현장을 담으며 적지 않은 한국의 의료진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울지마 톤즈>가 <울지마 톤즈: 슈크란 바바>(2019)와 <부활>(2021) 등의 관련 후속작으로 이어졌다면, <소명3:히말라야의 슈바이처>는 역사적 감동을 탑재한 <서서평:천천히 평온



하게>(2017)와 역동적인 사역현장을 담은 <아픈 만큼 사랑한다>(2019)로 이어지며 기독교 의료선교 영화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통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역을 보여준 박누가 선교사

임준현 감독의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지난 30년간 필리핀 오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병자와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 박누가 선교사의 사역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 의료선교영화다. 환자와 다름없는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병자가 있는 오지로 내모는 박누가 선교사의 삶은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 영화만의 특별함이기도 하다. 선교 다큐멘터리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박누가 선교사의 찾아가는 의료선교는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에서 들어온 중고 버스를 개조하여 만든 이동병원인 박누가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며 지금 그가 처한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메타포와도 같다. 언제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은 버스를 운전하는 박누가 선교사의 모습에는 버스와 일체가 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이슬람 반군이 출몰하는 민다나오 지역까지 버스를 몰고 갔던 행적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찾아가는 그의 성격을 보여주고, 특하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중간에 서버리는 버스의 상태는 온몸이 고장 난 그의 몸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 달라”라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다는 간구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료 손길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과 더불어 자신의 필요를 인정받을 때 느끼는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열망이 함께 존재한다.

둘째는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과 고통을 이타적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복음의 실행자로서의 숭고함이 영화에는 묻어 있다. 1992년 췌장암을 시작으로 당뇨와 간경화에 시달리고 결정적으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놓지 않았던 박누가 선교사의 얼굴은 영화를 찍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악화되어 가는 병세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러나 박 선교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뜻밖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환해 버렸

다.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자신의 병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심해질수록 필리핀 환자들에 대한 사랑은 깊어만 가는 박누가 선교사의 고통에 대한 생각은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핀 즐거운 의사생활

무엇보다도 박누가 선교사의 즐거운 의료선교는 이 영화만의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버스를 운전하면서 트로트 가요에서 찬송가까지 부르는다면, 오지에 사는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토속적이며 소박한 식사에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박누가 선교사는 일반적인 의사가 결코 맛볼 수 없는 즐거운 생활을 보여준다. 가방 가득히 먹을 것과 약을 넣고 다니면서 오지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약과 더불어 빵과 과자를 나누어주는 박누가 선교사의 얼굴에는 선교의 즐거움이 흐른다. 무료병원으로 운영되는 누가병원에 환자가 몰려오는 것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의 반증인 만큼 짜증을 낼 이유가 되지 못한다. 박누가 선교사의 말대로 “선교는 힘을 빼고 하는 것”이다. 목에 힘을 주면 권위는 생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유연성이 사라져 오래 버티기 쉽지 않다. 경상도 사나이로서의 투박한 말투와 함께 소박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정감있게 다가서는 박누가 선교사의 의료선교 자세는 힘을 빼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지난 11월 5일 베트남의료선교 중 하나님 품에 안기신 우리의 동역자 박상은 원장님을 추모하며.) FAITH & LIFE



✍ 글쓴이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문화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이다. 극동방송의 해설이 있는 명화극장을 통해 기독교 영화 전파에 힘을 쏟으며 대중강연과 미디어를 통한 문화선교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죽음과 종교>,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등이 있다.

어떻게 희망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

하임 포탁(Chaim Potak)의 <탈무드의 아들>(The Chosen)은 유럽에서 이주한 유대계 미국인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이다. 두 가정의 양육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중 '차티크'라 불리는 하시드파의 지도자인 아이작 손더스의 아들 대니 손더스는 한번 책을 읽으면 사진처럼 기억하는 명석한 기억력의 소유자이다. 아들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아예 삼켜버린다." 그러나 그런 아들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 아들에게는 가슴, 공황, 의로움, 자비, 그리고 고통을 견딜수 있는 힘이 필요할 뿐 '영혼 없는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여긴다. 아이작 손더스의 가정교육은 우리 부모의 그것과 달랐다. 똑똑한 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공황과 자비, 영혼과 가슴이 없다면 명석함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우려한다. 아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믿는다.

성숙한 사람은 인간이 관계의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다. 예술가들도 예외가 아니다. 예술가는 문화적 행위를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며 세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물론 이런 지속적인 실험이 검증되는 곳은 일터 속에서이다.

미술의 공공성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것은 공공미술의 형식을 띤 '마을미술 프로젝트'이다. 필자는 이 프로젝트를 초기에 틀을 잡으며 몇 년간 참여한 적이 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익숙한 갤러리 대신 산간마을이나 도시의 소외지역에 공공적 성격의 미술을 접목시키는

것을 개요로 삼았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면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일반과의 괴리감이랄까, 생소하게 여겼을 법한 프로젝트였음에도 지역주민이 발 벗고 나서서 참여하는 열띤 반응을 보인 것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정명교 작가의 판옥선 주민협업의 설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촌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작가들의 도움 아래 도자기를 굽고 염색도 해보고 그림도 그려보았다. 마을에 벽화와 조형물이 들어오고 작가들과 창작을 하는 색다른 체험을 만끽하였으며 마을을 생동감 있게 바꾸어준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보행로, 골목길, 마을센터, 경로당, 강변, 포구, 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등 장소는 달랐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그들은 미술품이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남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듯했으며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던 예술품이 삶의 공간에 설치되는 것을 마냥 신기하게 여겼다.

공공선의 구현은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일어나기도 한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성좌원(星座院)은 많은 편

전에 시달리며 살아온 한센인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다. 이곳은 같은 지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고도(孤島)와 같은 곳으로 인식되던 장소였다. 그런데 젊은 예술가 단체 '숨아트'는 성좌원 주민들의 삶을 담은 아카이브 영상을 제작하고, 성좌원 한센인들이 사용하던 물품을 반짝이는 별로 만들어 은하수를 꾸미는 아름다운 영상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성좌원 주민들의 삶을 담은 숨아트의 영상 아카이브 작품

주민들의 그림 전시회를 갤러리에서 개최, 지역민과의 소통을 꾀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예술인들이 중심으로 합창과 인물 드로잉 제작 등으로 성좌원 어르신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 등을 시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인들 역시 협업을 통해 다른 분야를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외에도 어르신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만일 기독교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려면 신앙 공동체 밖의 타인들을 찾아야 하며 섬김을 통해 타자들의 완전함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동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느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문화를 좁은 시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

식은 그리스도인의 문화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문화가 죄로 물들어 있어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지만, 그것이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영영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 세계를 섬기는 임무가 철회되었다는 암시는 아무 데도 없다. 우리는 양질의 문화를 즐기어 만들고 공급하는 데도 힘을 써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

벤 위더링턴 3세(Ben Witherington III)가 말했듯이 문화는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비유나 은유가 아닌 진짜 사실이다. 문화에는 항상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창의성의 도장이 찍혀 있다. 즉,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훨씬 잘 만들어보려는 선천적인 의도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창조주이고 통치자이며 유지자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에게 내재된 본성이다. 우리는 개인의 구원과 축복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부여된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기 주변 장소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라는 공통과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더 넓은 인식의 지평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참된 행복에 필요한 살림,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은혜 충만한 삶을 경축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인류의 공통과제에 참여하라는 요청이다.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벧전 3:13). **FAITH & LIFE**



✍ 글쓴이 서성록

안동대 미술학과 명예교수이다. 홍익대 서양학과와 동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하고 미국 동서 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전후의 한국 미술>, <한국 현대 회화의 발자취>, <한국 미술 노트>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예술과 영성>,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갈빈주의 예술론> 등이 있다.

성경에서 배우는 돈 걱정 없는 인생

이철민 (자산관리전문가)



<돈 걱정 없는 인생> / 조성표, 백정선 / CUP / 2023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한 돈과 자산관리

기독교와 자산관리,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얼핏 보기엔 무언가 부자연스럽다. 영적인 요소와 물질적 요소를 나란히 배치한다는 것도 썩 편치 않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신앙적인 부분과 돈과 관련된 물질적 요소를 깔로 베어내듯 딱 잘라 구분하기 어렵다. 둘 다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들이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재무관리를 목회의 주제로 삼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 책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인 조성표 교수가 번역한 <돈 걱정 없는 가정>의 저자 래리 버켓(Larry Burkett)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목사로서 목회의 주제로 삼은 것은 ‘돈’이다. 실제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죄를 짓고 영혼을 파괴당하지 않는가. 파산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교회도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신앙과 돈을 분리하거나 돈이라는 주제를 암묵적으로 뒤로 밀어두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자산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세상 모습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이 돈이라는 주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처한 현실도 돈이라는 주제를 떼어 놓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후자금은 더 많이 필요해졌고, 치솟는 집값으로 이 땅의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거나 반대편에서는 투기에 열을 올리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회계학 전문가 조성표 교수와 자산관리 전문가 백정선 대표가 함께 쓴 <돈 걱정 없는 인생>은 반갑기 그지없다. 이 책에는 신앙이라는 기둥을 굳건히 세운 토대 위에서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행복한 소비는 어떤 것인지, 투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돈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연령대별 처방전이 가득 담겨 있다.

돈, 하나님의 선물인가 우상인가?

“돈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아니면 우상인가?” 솔로몬과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다. 이들이 약삭같이 부를 쫓아서 그런 풍요로움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것은 오히려 물질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물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공

중의 새와 아름다운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듯 적절하게 의식주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울이고 생활하면 물질적 복은 결과로서 따라올 것이고, 설사 물질적 복이 적더라도 다른 복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물질적 복만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수님은 재산이나 소유,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으셨다. 즉,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위험성, 돈을 벌면 인생이 모두 평안해진다고 착각하기 쉬운 기만성, 속임수를 말씀하셨다. 우리는 물질적 복을 터부시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 재산권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이다.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재산은 자유 재량이 아닌 청지기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청지기는 재산을 자기의 뜻이 아닌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써야 한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의 용도는 무엇인가? 이 책의 저자들은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하나는 나와 가족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재물은 무한대의 행복을 제공하지 못한다. 현대 경제학에서도 소득이나 부가 주는 행복감은 무한대가 아님을 이미 밝히고 있다. 재물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는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신앙적 평안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투기나 투자나, 그것이 문제로다!

돈만 벌면 모로 가도 좋은가? 투기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과정은 없이 결과만 추구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은 '청지기론'이다. 투자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돈만 많이 벌겠다고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맘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일이라고 이 책의 저자들은 강조한다. 저자들의 말을 들어 보자.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고 안정성을 높이거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건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 없이 돈만을 축적하려는 투자는 맘몬 우상을 섬기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돈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 안에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알아보자. 일단 시작은 부부가 같이하는 것이다. 부부가 서로 다른 주머니를 차려고 하는 것은 가정경제의 위험신호라는 게 저자들의 아픈 지적이다. 돈에 대한 집착과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산의 상황을 살피고, 자신의 인생 가치관에 맞는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나누는 일을 하나하나 착실히 해나가야 한다. 삶에서는 재정적인 면과 비재정적인 면이 균형이 이루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강박한 삶을 살고 매사에 돈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면,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잠 15:16) .

FAITH & LIFE

글쓴이 이철민

그리스도인 자산관리전문가이다. 1990년 중반에 일간신문사 재테크 전문기자로 시작하여, MBN TV 패널, 공중파 TV, 라디오에 투자전문가로 출연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관련 서적과 기고문 등을 내고 있다. 현재는 대형 증권사의 투자, 은퇴설계관련 부문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람들의 재테크 및 투자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전하여 바른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찾아내야 할 돌파구, 탈성장 교회

이상민 (불문학교육 박사, 실행위원)



〈탈성장 교회〉 / 이도영 지음 / 새물결플러스 / 2023

필자는 '탈성장'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한 적이 있어, '탈성장 교회'라는 책 제목이 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탈성장'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탈성장' 담론이 등장한 배경 및 '탈성장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없는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된 경제와 대량 소비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이미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 그래서 무분별한 성장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인류문명이 붕괴한다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환경오염 위기 때문에 일어날 붕괴 시기는 2040년경으로 되어 있고, 식량 위기 때문에 일어날 붕괴 시기는 2070년경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붕괴를 막는 유일한 길은 무제한의 성장을 포기하면서 자발적인 '탈성장'을 모색하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성장 사회'는 최악의 상황이며, 단지 성장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지금이 바로 이런 위기의 시대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업, 빈부 격차의 증대, 빈곤층의 구매력 저하뿐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보건의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복지 정책의 포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탈성장'을 시도하는 것은 욕구의 자발적 제한을 기반으로 인류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검소하고도 풍요로운 사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소비를 적게 하지만 소비의 질을 높이며, 나눔의 윤리와 실천 가운데서 행복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악착같은 경쟁, 이기심, 무제한의 부의 축적 같은 시장 사회의 가치 및 자연에 대한 파괴적 사고방식을 대신하여, 이타심, 호혜, 공생, 나눔,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탈성장 사회'야말로 인류문명이 붕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다.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탈성장 교회'는 성장주의를 벗어나려는 '탈성장'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이다. 여기서 성장주의는 단지 규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장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탄소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적 사회 문화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성장은 생태, 정의, 평화 전반

에 걸친 주제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탈성장 교회'는 역(逆)성장, 곧 마이너스 성장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교회다.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성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결코 본질을 회복할 수 없다. '탈성장 교회'는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이자 윤리적·생태적·미학적 관점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저자는 '탈성장 교회'야말로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39~40쪽).

이 책의 중심 부분은 '제5장 새로운 왕의 길 4, 탈성장'이다. 여기서 저자는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절대적 기준이 되는 GDP(국민 총생산)에 결함이 있다고 하면서 GDP는 경제활동을 돈으로 환산하여 총계를 내지만 이 경제활동이 유용한지 파괴적인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고 비판한다.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든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하기에, 이제는 GDP 대신 '국민총행복'을 높이는 새로운 지수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274~277쪽). 탈성장과 관련하여,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게 됨으로써 '탈성장' 담론이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알려진 기업들조차 변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을 외치고 있다. 아울러, '그린 뉴딜'이라는 과감한 계획 및 성장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봉쇄를 통해 기후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307~311쪽). 이어서 저자는 성장 없는 변형을 강조하면서, 성장주의 신화들의 허상 및 '발전'이라는 환상을 비판할 뿐 아니라, 탈성장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인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다(318~332쪽).

저자는 탈성장 교회의 예시로서 건강한 작은 교회를 들면서 공동체성, 제자도, 공공성, 공교회성 등을 참

됨과 건강함의 네 가지 속성으로 제시한다. 탈성장 교회의 현실적 모델로서 작은 교회만이 아니라 '적정 교회'도 필요하다. '적정 교회'는 지역 생태계와 교회 생태계를 살려내며, 생태·정의·평화를 실천하는 교회의 정신과 체제와 방법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334~338쪽). 이처럼 저자는 이제 한국교회가 '탈성장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탈성장' 담론을 기반으로 이제 한국교회가 윤리적이고 생태적이며 미학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밝힌다.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적정 교회'의 면모를 보이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 교회, 생태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태적 교회, 분열을 넘어 평화를 실현하는 미학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교회는 구성원 각자와 공동체가 윤리적·생태적·미학적 삶을 살아내는 '탈성장 교회'로서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인류문명이 붕괴할 수도 있는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의 갱신과 근본적인 변화를 바라는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급격히 와해하고 약화하는 현시점에서 한국교회는 깊고 어두운 산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찾아내야 할 돌파구는 과연 무엇인가?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FAITH & LIFE**



✍ 글쓴이 이상민

서울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同) 대학원에서 불문학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실행위원 및 '동역회' 기관지 <신앙과 삶>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자크 엘릴,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 <기술, 선전, 정치, 혁명>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자크 엘릴(Jacques Ellul)의 <기술 체계>, <잊혀진 소망>, <이슬람과 기독교> 등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공공성

이춘성 (목사,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겸임교수)



〈하나님의 공공선〉 / 송용원 / 성서유니온 / 2020

공공성으로 충분한가?

지난 4년 동안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이번 2023년 수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도 마스크를 쓰면 한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재난이 끝난 후 공적 영역에서는 그 기간 보여준 교회의 대처를 보고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심하고 있다는 통계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한국 기독교는 초기부터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공적 교회였다. 하지만 해방과 전쟁, 이후의 극심한 가난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교회는 또 다른 형태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신학과 사상을 만들었다. 이전에는 민족주의라는 공공성을 지향하였다면, 이제는 경제 발전과 풍요라는 공공성을 격려하는 기복신앙과 변영신학이 유행하였다. 많은 사람은 기복신앙과 변영신학이 신앙의 공공성을 약하게 만들어, 기독교 신앙을 개인화, 사사화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성의 변화에 교회가 반응한 것이었다. 교회는 언제나 공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서구 사회는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구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배제해야 할 사적인 요소들을 지정하였다. 혈연, 인종, 언어, 성, 종교 등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이와 달리 국가, 교육,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영역은 공적인 영역이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은 서로 위계를 지닌다.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보다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적인 영역은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과거에는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했다면, 근대에는 국가를 위해 개인이 전쟁에 참여한다. 국가라는 공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 사적인 영역의 희생이 당연시되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공성은 국가주의라는 기반 아래 근대에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공공신학은 교회가 국가나 사회가 정한 아젠다와 이익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여서 교회를 공공의 영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일종의 운동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는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세계 속에서 교회의 영역을 공공의 주체가 아닌 한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지는 의문이 있다.

공동선의 재발견

저자는 <하나님의 공공선>에서 공공성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공공이 공유하는 공동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공동선(公同善)은 공공성(公共性)이나 공익(公益)보다 큰 개념입니다. 공(公)은 영어의 public에 가깝고 공(共)은 common에 가깝습니다. 공(公)은 통합된 전체의 의미가 강조되어 위에서 아래를 조절하는 뉘앙스가 짙은 단어이지만, 공(共)은 구성원 각각의 개별성이 강조되는 뉘앙스가 짙은 단어입니다..... 공공성이나 공익은 전체를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공동선은 전체와 개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29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자신들도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과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논의의 핵심은 어떤 가치와 의제를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아니라 그 의제와 가치를 누가 정하느냐에 있다.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의 가치를 규정하는지, 아니면 사적인 영역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구조인지가 중요하다. 이쉽게도 현대의 공공성은 이러한 열린 태도를 수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자가 정의한 공동선은 영역과 위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인간이 공유하는 공동선을 개인과 공동체가 공유하고, 이를 서로 증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자칫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경우를 고대로부터 학습하였기 때문이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이러한 희생양 현상이 고대에서부터 빈번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과 공동체는 수평적인 축만이 아닌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수직적인 축이 하나 더 필요하다. 공동선이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은총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은총

은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향한 ‘일반은총’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만을 위한 ‘특별은총’이다. 그러므로 공동선은 하나님께서 신자와 비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일반은총’인 것이다.

공동선과 환대, 그리고 정의

공공신학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공동선이란 공적, 사적인 영역이 아닌 인류가 공유하는 선함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공동선이란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인종, 종교, 빈부,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그러므로 공동선이란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한 환대에 기초해야 한다. 공동선의 시금석은 약자를 향한 태도라는 것이다. 그 사회의 최약자에게 공동선이 실현되고 있다면, 그 사회는 공동체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수직적이며, 신적인 은총이 임한 정의로운 사회이다. 물론 이는 교회와 신자들이 자랑치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는 사회가 강자들의 세상이라면,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 하나님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마 25:42-43). FAITH & LIFE



✍ 글쓴이 이훈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 겸임교수이다.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전임 연구원 및 총무 이사, 분당우리교회 협동목사로도 섬기고 있다. 라브리 공동체(L'Abri Fellowship) 국제 멤버였다. 저서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1>(공저, IVP), <회복하는 교회>(생명의 말씀사)가 있다.

고엘뱅크의 새로운 출발

김신영 (보성교회 고엘뱅크 조합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자는 마음으로, 관계 중심의 대안 금융인 고엘뱅크가 설립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고 작년 말 두 교회가 합병을 하면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1960년에 설립된 용산구 보광동에 위치한 보성교회와 7년 전 강남구 양재동에서 시작한 서향교회는 '둘이 하나 되어 위대한 교회'라는 표어 아래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다. 관계가 중요한 금융인 고엘뱅크에게는 매우 큰 변화의 시기였다. 그에 따라 고엘뱅크도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 올해 2월에 3기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새롭게 선출된 고엘뱅크 임원진은 고문, 자문, 감사 등의 비운영위원과 조합장, 총무, 교육, 회계, 홍보, 서기 등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엘뱅크가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관계'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주일에 1번 이상 만나는 특별한 관계가 돈이 없으면서 불편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엘'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많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올 한해는 '소통'과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알림톡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카카오톡 방에는 매월 회계 보고, 월 소식지, 상황 독려 메시지, 정기회의 후 결정된 주요사항 등을 전달한다. 조합원 개인에게는 매월 개인 출자금, 대출금 및 상환금 현황을 알려주고, 매월 상황 실행 및 상황 완료가 발생하였다면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대출을 받았다면 매월 상환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약속이지만 여러 이유로 제때 상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양한 형태의 알림톡을 운영하고 나서는 매월 상환율이 늘었고, 장기 미상환자들이 다시 상환을 시작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두 교회가 합병하면서 고엘뱅크를 처음 접하시고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 그에 따라 정기 교육과 함께 신규 가입 조합원 교육을 개설하였다. 고엘뱅크 이용 설명서를 제작하여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대출 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고엘뱅크 이용 설명서로 설명을 마친 후 퀴즈를 통해서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추가 설명을 통해 조합원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최대한 숙지시키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 한해는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를 정리하였으며 대출 사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내년에는 올해 운영하고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세부 운영규정 및 대출 사업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고엘뱅크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조합원과 임원진 덕분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지지치 않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무보수지만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고엘뱅크 3기 임원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FAITH & LIFE

✍️ 글쓴이 김신영

보성교회 고엘뱅크 협동조합의 조합장(2023~현재)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어계측공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적정기술에 관한 관심으로 네팔과학기술봉사단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하지 마비 환자들을 위한 재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보성교회 고엘뱅크 이용자 소감문

작은 묘목이 큰 나무가 되기를 기대하며



일 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사를 오고 새롭게 찾은 교회는 꽤나 독특한 곳이었다. 나에게 교회란 정적인 느낌이 강했다면, 이곳은 다양한 변화와 시도가 있는 곳이었다. 그중에서도 고엘뱅크는 신앙과 삶을 이어주는 좋은 매개체로 느껴졌다.


처음 고엘뱅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였다. 개인적으로 학생 때부터 무이자 무담보 대출 사례들을 배워왔던 입장이기에 큰 이질감 없이 받아들였고 적은 금액으로 가입을 했다.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었기에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었지만, "여러 명의 적은 금액이 모였을 때 충분히 필요를 채워줄 수 있구나"라는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되기 위해 시작한 고엘뱅크였지만 나에게도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를 1주일간 쉬면서 그만큼의 재정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다. 갑자기 생긴 재정 공백은 이것저것 줄여도 턱없이 부족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부모님이나 형,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똑같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조합원인데 대출 상담을 해보자!"라고 생각하며 대출 신청을 했고 54만 원을 빌렸다.

고엘뱅크에서 대출을 할 때 꼭 정해야 하는 것은 대출 이유, 대출 금액, 상환 기간이었다. 상환 기간을 지킬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1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씩 상환하기로 정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인지 필요할 때 사용한 54만 원은 너무 요긴했지만 매달 5만 원씩 나가는 상환 비용은 조금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날은 그 5만 원이 꼭 필요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환 금액과 기간을 스스로 정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11개월 동안 꾸준히 상환하면서 매달 메신저로 남은 상환 금액이 알려져 왔다. 조금씩 줄어드는 금액을 보며 미묘한 기쁨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종의 성취감이었던 것 같다. 모든 금액을 다 갚는 마지막 날에는 간단한 축하 메시지가 왔다.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일말의 정감을 느꼈다. 공동체의 친한 형이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지금도 고엘뱅크의 소중한 조합원으로서 매달 적은 금액을 출자하고 있다. 고엘뱅크는 마치 나무를 심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아직은 작은 묘목 같은 고엘뱅크이지만, 더 많은 사람이 꾸준하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갑작스러운 비를 막아줄 좋은 큰 나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글쓴이 이주연

보성교회 '보다예'(유초등부) 부장교사이며 청년부 리더인 '섬김이'를 맡고 있다. 계명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현재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공선·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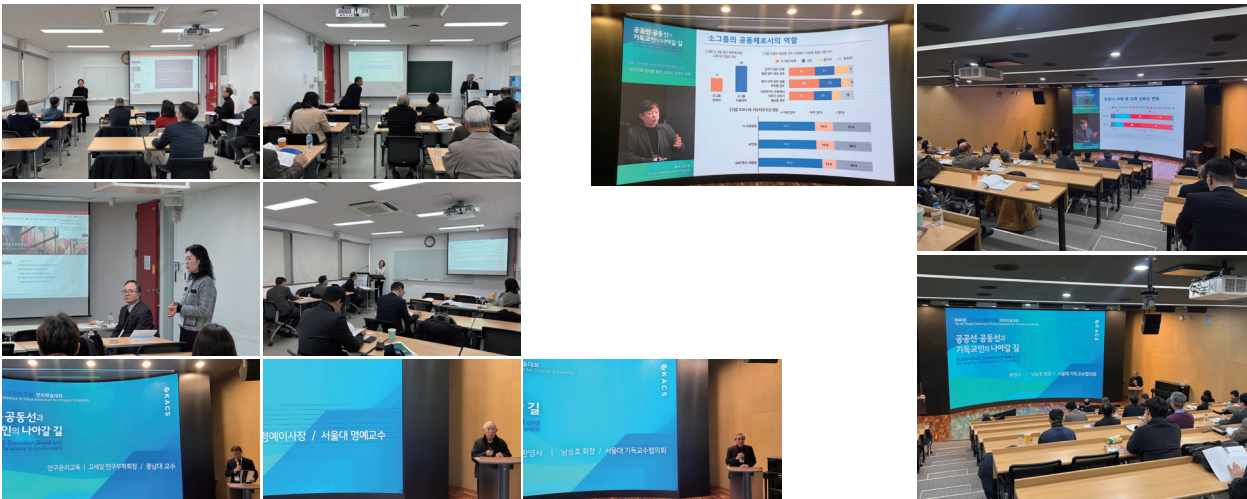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공공선·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Public Good, Common Good and the Way for Christians Go Forward)이라는 주제로,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주관,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한국로고스경영학회의 주최, 새로남교회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에서 있었다. 주제강연은 3편이 있었고, 분과 논문 발표회는 대학원생부 세션을 포함하여 29편의 논문 발표자 및 해당 논문 논찬자가 함께 이끌어 주었다.

오전(10:00~12:00) 대학원생부 세션에서 김욱(성공회대 조직신학 박사수료) 발표자는 ‘인공 지능시대에 기독교 인간관’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이 공공의장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로서 참여, 겸손, 생명이라는 덕의 가치를 제안했고, 김은진(서울대 디자인학부 박사과

정) 발표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ESG 문제 해결 연구: 반려동물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반려동물 급증으로 인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문제 해법을 메타버스 디자인에서 찾았다.

오후 첫 번째 순서(1:00~1:30)인 개회식은 박지희(기학연 부총무, 성균관대 초빙교수) 교수의 사회로, 김태황(기학연 학회장,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교수의 개회 인사, 신국원(동역회 이사장, 총신대 명예교수) 교수의 개회기도, 남승호(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 대표,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 교수의 환영사, 손봉호(동역회 명예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교수의 축사, 고세일(기학연 연구부학회장, 충남대 로스쿨 교수) 교수의 연구윤리교육이 이어졌다.

두 번째 순서(1:30~3:30)는 박동열(동역회 실행위원장, 서울대 교수) 교수의 사회로 주제강연과 패널토의 시간이



있었다.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교수의 ‘시민 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의 공공선 기여’, 이대희(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이사장) 이사장의 ‘사회적 기업활동과 공동선 추구 활동을 통한 기독교 사명’, 김유준(주빌리교회 목사, 송실대 초빙교수) 목사의 ‘공동선을 향한 청년사역’의 주제강연과 이명현(인천대 교수) 교수, 이병주(변호사, 기독교법률가회 대표) 변호사의 패널토의, 그리고 주제 강연자 전원이 함께 단상에 배석하여 현장 참여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이 있었다.

세 번째(3:30~6:00)는 분과별 발표회였다. 경제/경영(I) 분과는 황인태(협성대 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이선복(동서대 교수), 오근혜(협성대 객원교수), 오성은(서울대 경제개발센터 전문위원), 배재욱(영남신대 은퇴교수), 경제/경영(II) 분과는 이창원(한양대 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고성훈(경기대 조교수), 김현지(칼빈대 조교수), 이완형(서울사이버대 교수), 조인영(협성대 조교수), 최수호(동의대 교수) 발표자, 인문학 분과는 양성만(우석대 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황인경(성균관대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소은희(숙명여대 교수), 기철수(조선대 교수) 발표자, 세계관 분과는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조혜선(러시아 민족대학 박사), 강상우(사회복지 Coram Deo), 구준호(예수사랑교

회 목사), 지상선(성균관대 겸임교수) 발표자, 교육학 분과는 박해일(경희대 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김현경(백석문화대 교수), 신태규(과학예술연구소 소장), 윤상현(한동대 교수), 박문식(한남대 교수) 발표자, 과학/기술 분과는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강경우(백석대 교수), 강은정(순천향대 교수), 김수환(총신대 교수) 발표자, 공연예술 분과는 박순자(숙명여대 명예교수) 교수를 좌장으로 이신영(한국외대 특임강의 교수), 이은형(한양대 겸임교수), 강미리(비버데프예술단 협력지도자) 발표자의 발표와 논찬 및 자유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공공선·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것은, 최근 ‘한국 갤럽’이나 ‘지앤지 리서치’ 등 전문 기관의 종교의식조사가 대변하듯이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날로 실추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모든 참여자에게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구원)은 개인 영혼만 아니라 사회와 문화 모든 것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개인적 대속의 은혜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회심을 동시에 함축한다는 값진 성찰의 기회가 되었다. **FRITH & LIFE**



*연차학술대회 관련 영상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 개최

주제 : 공공선·공동선과 기독교인의 나아갈 길

일시 : 2023년 11월 18일(토) 13:00 ~ 18:00 (대학원생부 세션 10:00 ~ 12:00)

장소 : 서울대학교 사범대 12동 401호

주제강연 1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교회의 공공선 기여' / 정재영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주제강연 2 '사회적 기업 활동과 공동선 추구 활동을 통한 기독교 사명' / 이대희 원장 (샘병원 대표이사)

주제강연 3 '공동선을 향한 청년 사역' / 김유준 목사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송실대 초빙교수)

※ 제40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연차학술대회가 100여 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3명의 주제강연자가 주제를 강연하였고, 2명의 패널토론자가 주제강연에 관한 논평을 하였으며, 주제강연자, 패널토의자, 참석자 사이의 질의응답을 통해 열린 토론의 장이 되었다.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28권 4호(12월 31일 발간 예정)

<신앙과 학문> 28권 4호는 현재 13편의 투고된 논문을 심사위원들이 심사 중이다.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조직 및 임원

사단법인 이사회

명예 이사장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이사장 신국원(총신대 명예교수)

이 사 박문식(한남대 교수), 박영주(미드웨스턴 신학대 교수), 유재봉(성균관대 교수), 최현일(샘병원 의사), 양성만(우석대 교수), 조성표(경북대 교수), 장수영(포항공대 교수), 정희영(총신대 교수), 최태연(백석대 교수), 오정호(새로남교회 목사)

감 사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前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실행위원회(*표기는 신임, 임기 : 2023.01.30.~2025.01.29.)

실행위원장 박동열(서울대 교수)

실행위원 강진구(고신대 교수), 김기현(로고스서원 대표), 김미영(사람과삶 대표), 김예원(VIEW 간사), 김지원(백석대 교수), 김혜정(CUP 대표), *김태황(명지대 교수), 문준호(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석종준(서울대 캠퍼스 선교사), *이병주(기독교법률가회 대표), *안승범(경희대 교수), 이상민(교육학자), 유경상(CTC 대표), 윤현준(송실대 교수), 이재희(가천대 교수), 장슬기(높은뜻씨앗스쿨 교감), *조예상(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 최용준(한동대 교수), 황혜원(청주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 김태황(명지대 교수)

연구부학회장 고세일(총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술부학회장 김지원(백석대 교수)

기획부학회장 김철수(조선대 교수)

총 무 윤현준(송실대 교수), 부총무 박지희(성균관대 초빙교수)

감 사 류현모(서울대 교수), 이명현(인천대 교수)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박해일(경희대 교수, 뇌과학)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

권오병(경희대 교수, 경영학), 김동혁(연세대 교수, 구약학), 김성원(서울신대 교수, 조직신학), 김철수(조선대 교수, 영문학), 박원근(이화여대 교수, 국제어문학), 송재일(명지대 교수, 법학), 신용철(송실대 교수, 서양철학), 안소영(경상대 교수, 국제경제학), 염동한(부산대 교수, 물리교육학), 이은실(한동대 교수, 교육학), 임춘택(제주대 교수, 독문학), 조은주(고신대 교수, 간호학), 허계형(총신대 교수, 유아교육학), 황혜원(청주대 교수, 사회복지학)



▶ VIEW(전성민 대표)

1) VIEW(Vancouver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Academic Programs 안내

- Master of Arts – 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문학석사
졸업 이수 학점: 53학점(2.5~3년)
- M.Div in Worldview and Peace Studies (Korean) 세계관 및 평화학 목회학석사
이수 학점 및 예상 수강기간: 89학점 / 3.5~4년
- Graduate Diploma–Christian Worldview Studies (Korean) 기독교 세계관 디플로마
졸업 이수 학점: 35학점(1.5~2년)
- 온라인과정 : 밴쿠버 전일제 학생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이나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VIEW 과정을 수강 및 졸업할 수 있다.

※ 입학 안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 홈페이지(view.edu)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CTC(유경상 대표)

- 어린이 교육 : '하이세 아카데미' 4학기 '하나님, 꿈이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지도자 교육 : 기독교세계관 교육의 원리와 실재를 공부하는 '4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기본과정'과 어린이세계관교육을 준비하는 '3기 기독교세계관 교육 강사과정'이 진행 중이다.
- 부모 교육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인문고전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뷰 패밀리 아카데미에서 '기독교세계관으로 호빗 읽기'가 진행 중이다.
- 대학생 교육 : 아신대학교 '기독교세계관과 코칭' 수업이 진행 중이다.
- 교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세계관 교육 : 부산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에서 1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삼일교회(송태근 목사)에서 3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인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성광교회(남세주 목사)에서 4학기 어린이세계관학교 '하나님, 꿈이 뭐예요'가 진행 중이다.

※ 2024년 기독교세계관교육 지도자과정 모집: '4기 기독교세계관교육 강사과정'이 2024년 3월 개강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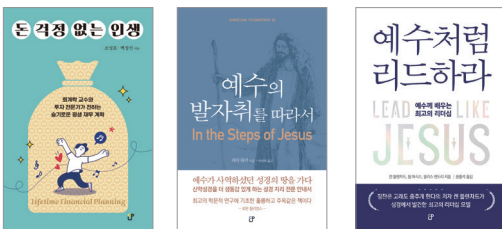
※ CTC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참여 신청은 CTC 사무국(010-3673-8439) 또는 CTC 홈페이지(www.ctcworldview.com)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

※ 2023년도에도 '기독교세계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다음세대 세우기'를 목표로 하는 CTC 사역에 동역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도서출판 CUP(김혜정 대표)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종교)에 CUP 출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피터 워커 지음 | 박세혁 옮김)가 선정되었다

신간 소개



<돈 걱정 없는 인생> 조성표, 백정선 지음 | 232면 | 14,000원 | CUP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피터 워커 지음 | 박세혁 옮김 | 528면 | 25,000원 | CUP

<예수처럼 리드하라> 켈 블랜차드, 필 하지스, 필리스 헨드리 지음 | 윤종석 옮김 | 400면 | 22,000원 | CUP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정보 (2023년 9월, 10월결산)

수입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9월	2023년 10월	지출 항목	세부 항목	2023년 9월	2023년 10월
경상수입	이사회비	600,000	810,000	인건비	일반급여	5,300,000	5,300,000
	임원회비	610,000	520,000		기타급여	1,300,000	400,000
	일반회비	3,940,000	4,242,500		소계	6,600,000	5,700,000
	기관후원금	2,780,000	5,150,00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850,000	874,000
	월드뷰후원금	0	0		사무실관리비	501,359	440,398
	사무실후원금	0	0		통신비	158,044	166,891
	CTC후원금	60,000	60,000		우편료	6,000	126,320
	VIEW후원금	1,125,000	1,125,000		소모품비	11,900	0
	기타후원금	0	0		비품	0	0
	월보구독료	393,500	438,500		식비	265,770	300,800
	학술지원금	0	0		수선비	0	0
	세계관사역지원금	0	0		복리후생비	923,130	923,130
	기타	0	0		퇴직연금	426,280	426,280
					회계용역비	55,000	55,000
			여비교통비		0	0	
			서무비		55,000	55,000	
			기타(지급수수료)		137,135	137,102	
			소계	3,344,130	4,217,359		
기타수입	일반이자	3,904	0	연구지원비	CTC후원금	59,725	59,725
	법인이자	0	0		VIEW후원금	1,194,825	1,115,265
	법인세환급금	0	0		소계	1,254,550	1,174,990
	기타수입	0	0	출판(회지)	인쇄비	0	1,463,000
	기금차입	0	0		발송비	0	637,700
	결산이자	0	0		홈페이지/홍보비	0	70,000
	예수금	472,160	472,160		소계	0	2,170,700
				기타	세금	37,360	37,360
			잡비		800	300	
			소계		38,160	37,66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일반등록	0	0	세계관아카데미	세계관강사료	0	0
	세계관기타수입	0	0		세계관행사준비	237,800	302,500
					세계관기타	0	0
소계	0	0	소계		237,800	302,500	
학회	학회이사회비	110,000	310,000	학회	학회강사료	0	0
	학회행사수입	80,000	570,000		학회장소사용료	0	0
	자료집판매	0	0		학회자료제작비	0	0
	학회지판매	0	0		학회홍보및기타	0	112,180
	학술지심사비	0	0		학술지인쇄비	0	2,504,300
	학술지게재료	3,290,000	0		학술지발송비	0	707,080
	저작권료	0	0		학술지심사료	0	570,000
	학회기타수입	0	1,300,000		학회조교비	0	0
	소계	3,480,000	2,180,000		소계	0	3,893,560
전월 미수금	전월 CMS입금	981,905	1,013,360	차월이월 수입금	이달 CMS미수금	1,013,360	1,171,190
	전월 이니시스 입금	0	10,000		이달 이니시스 미수금	10,000	160,000
	소계	981,905	1,023,360		소계	1,023,360	1,331,190
당월 수입액		14,446,469	16,021,520	당월 지출액		12,543,488	18,115,521
전월 이월액		22,875,307	24,778,288	차월 이월액 (잔액)		24,778,288	22,684,287

* CMS, 이니시스 등 입금여부를 명시하여 당월 현금시제와 재정보고서 금액이 일치합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후원

(2023년 9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건, 광도영, 구성덕, 권지연,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색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정명, 김정실,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한지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방선기, 손화정, 이경우,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선욱, 고용재, 고철용, 권경호, 권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농우,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색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성,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경호,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우,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영운, 박상희, 박성일,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하은, 손현태,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우리, 오익석, 오주희,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희, 이지연,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윤희, 이정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성진, 정영수, 정용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성, 최은정, 최희빈, 최현식, 최정민, 추명순, 추진태,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형, 홍구하,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영, 황상준, 황성연, 황세한,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경희, 김선화, 김승택,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우란, 구준호, 기민석,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경호, 김태진, 류화원, 박기모, 박지현, 박해일, 박홍식, 송찬호, 안선자, 양승규, 오성수, 오지석,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연우, 이종훈, 이희진,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성진, 정영수, 정용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희빈, 최현식, 최혜정,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형, 홍구하,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영, 황상준, 황성연, 황세한,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경희,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우란, 구준호,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경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백은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삼미, 이연우, 이영미, 장인석, 정훈, 최현중, 한동빈, 허정도, 홍요셉,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강진구,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연,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해경, 이은실, 전상홍, 정민, 조승희,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김서진, 김종원, 문석윤, 우병훈, **5만** 강다일,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석종준, 손창민, 송종철, 이창우, **8만** 마민호, 정주현, **10만** 김태항,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천연금, **12만** 김민철, 박문식, **15만** 최현일,

계 6,768,5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양제일교회, 고제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동교회, **20만** 남서울교회,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계 2,850,000원

전체 9,618,500원

회원후원

(2023년 10월)

3천5백 생명의강, **5천** 강대용, 강연희, 공승건, 광도영, 구성덕, 권지연,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대용, 김봉현, 김상욱, 김색별, 김성권, 김성욱, 김성찬, 김성호, 김승택, 김정명, 김정실, 김정원, 김형근, 김화년, 김희원, 노승욱, 박광재, 박해조, 범경철, 손영경, 손영일, 송시섭, 신종철, 오경숙, 유종열, 이경미, 이기훈, 이길수, 이덕재, 이수인, 이원재, 이인수, 이종혁, 이지영, 이항숙, 임성규, 임소연, 임형준, 장재수, 장현일, 장현정, 전보규, 전은경, 정진우, 조성진, 주성탁, 지경순, 진성자, 최광수, 최동희, 최수아, 최연우, 최원길, 하태실, 한배선, 한지현, 홍승기, **7천5백** 강찬진, 박상근, 방선기, 손화정, 이은순, 전영식, 진영규, **1만** 강연정, 강은정, 강혜영, 고길현, 고용재, 고철용, 권경호, 권원평, 김경진, 김경호, 김광태, 김규욱, 김남진, 김농우, 김도형, 김동연, 김민성, 김병국, 김병운, 김병재, 김병철, 김봉수, 김봉애, 김상범, 김상욱, 김색별, 김성규,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수빈, 김수진, 김수홍, 김신성, 김아람, 김아론, 김연진, 김영규, 김영숙, 김영운, 김영호, 김용석, 김유니스, 김윤권, 김은덕, 김은태, 김재만, 김재정, 김정일, 김정준, 김정철, 김경호, 김종일, 김중철, 김좌남, 김주영, 김지근, 김진성, 김철수, 김태룡, 김혁, 김현정, 김혜정, 김혜정, 김홍빈, 김화선, 남선우, 라영환, 류지호, 류진호, 류현우, 류화원, 모상근, 모아론, 박능안, 박동현, 박영운, 박상희, 박승호, 박시운, 박원근, 박은주, 박준모, 박진현, 박진규, 박현민, 박혜경, 박희주, 배아론, 배지연, 백경은, 백요한, 부천평안교회, 사호행, 서화진, 성기진, 성영은, 소진희, 손창민, 손하은, 손현태, 송아영, 송은희, 송철호, 신성만, 신찬용, 신현정, 신현주, 신호기, 심은희, 안병열, 안석, 안성희, 안승범, 양성건, 양성철, 양행모, 양혜영, 양희석, 연혜민, 염동한, 오민용, 오성호, 오우리, 오익석, 오주희, 오지석, 유경재, 유기남, 유상원, 유상한, 유승민, 유영준, 유재은, 유해우, 윤상현, 윤숙자, 윤영배, 윤재림, 윤태형, 윤현준, 윤혜림, 이강, 이경직, 이다니엘, 이명동, 이명복, 이명진, 이명현, 이병수, 이병주, 이봉근, 이상수, 이상진, 이상희, 이선경, 이선복, 이상근, 이상수, 이세정, 이수연, 이수현, 이순진, 이승업, 이시영, 이아름, 이연구, 이연희, 이지연, 이요한, 이용훈, 이원도, 이원준, 이우미,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윤희, 이윤희, 이정나, 이정욱, 이정일, 이종철, 이종섭, 이지연, 이진희, 이창훈, 이해리, 이행로, 이희진, 이희진, 이희진, 임동진, 임상희, 임수복, 임지연, 임춘택, 장경근, 장슬기, 장승화, 장은혜(양종태), 장인숙, 장창수,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정다운, 정동관, 정봉현, 정성진, 정영수, 정용수, 정재섭, 정희원, 제양규, 조경덕, 조명자, 조미연, 조성국, 조성권, 조성욱, 조영우, 조은주, 조은향, 조이수, 조주영, 조현용, 조현우, 조현지, 조혜선, 지의정, 차봉준, 채기현, 채일, 채희석, 최대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 최용성, 최우성, 최은정, 최희빈, 최현식, 최혜정, 추진연, 표민호, 하성만, 하재희, 하현진, 한미영, 한신영,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형, 홍구하, 홍정석, 홍종인, 홍판석, 황기철, 황도영, 황상준, 황성연, 황세한, 황에스더, 황의찬, 황혜수, **1만5천** Miya Toshiko, 김경희, 김선화, 김준원, 박정호, **2만** 강우란, 구준호, 김보경, 김용식, 김인수, 김정욱, 김경호, 김태진, 박기모, 박홍식, 백은석, 송찬호, 안선자, 오성수, 우시정, 유경상, 이건, 이기서, 이삼미, 이연우, 이영미, 장인석, 정훈, 최현중, 한동빈, 허정도, 홍요셉, 황혜정, **2만5천** 한윤식, **3만** 강진구, 고세일, 김경민, 김대인, 김두환, 김방용, 김예연, 김용봉, 류동규, 문준호, 박신현, 박종국, 서성록, 서성록, 손화철, 송인규, 송태현, 신해경, 이은실, 전상홍, 정민, 조승희, 최동진, 최용준, 추태하, 황영철, 황정진, 황혜원, **4만** 김서진, 김종원, 문석윤, 우병훈, **5만** 강다일, 김영주, 김중우, 김태훈, 김택호, 손정엽, 양승훈, 윤석찬, 이대경, 이상민, 전희경, 정은애, 황준용, **6만** 김수자, 박은호, 배덕만, 석종준, 송종철, 엄준용, 이경숙, **8만** 임재광, **10만** 박영주, 손봉호, 신국원, 장수영, 장점연, **12만** 김민철, 박문식, 심상수, **15만** 강우수, 최현일, **20만** 윤완철, **21만** 최태연,

계 7,456,000원

기관후원

5만 고양제일교회(VIEW후원), 고제교회, 다은공동체교회, 일원교회, **10만** 강남교회, 개봉교회, 계산제일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더세움교회, 상대원침례교회, 새로나교회, 새연약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성의교회, 예수항남교회, 예성교회, 중앙제일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충신교회, 원동교회, **20만** 금성교회, 남서울교회, 로고스교회(김기현), 삼일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200만** 할렐루야교회,

계 5,200,000원

전체 12,656,000원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편집위원 소개

발행인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편집장	신국원	충신대 명예교수, 이사장
편집위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서울대 Ph.D, 실행위원
	김반석	서울대 사회학과 석사 졸업, 도쿄대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김유준	서울 주빌리교회 담임목사, 교회사, 연세대 Ph.D, 연세대 연구교수, 캠퍼스 사역전문가
	김셋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교육심리학, 오하이오주립대 Ph.D, 정회원
	김혜정	도서출판 CUP 대표, 실행위원
	문준호	코아시아옵틱스 연구위원, 물리학, 카이스트 Ph.D, 실행위원
	박동열	서울대 교수, 언어학, 파리소르본대학교 Ph.D, 실행위원장
	박영주	미드웨스턴 신학대학 교수, 교육학, 컬럼비아 인터내셔널 대학교, Ph.D, 이사
	박진규	서울여대 교수, 미디어와 문화학, 콜로라도대, Ph.D, 실행위원
	박흥식	서울대 교수, 서양사, 괴팅엔대 Ph.D, 前 100주년기념교회 양화진문화원장
	석종준	서울대 캠퍼스선교사, 조직신학, 침신대 Ph.D, 기획위원장
	양성만	우석대 교수, 서양철학, 고려대 Ph.D, 이사
	윤현준	송실대 교수, 기계공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이병주	기독교법률가회(CLF) 대표, 변호사, 하바드대 로스쿨 석사, 실행위원
	이상민	번역가, 교육학, 서울대 Ph.D, 실행위원
	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적정기술학, 미시간대 Ph.D, 이사
	전명희	한동대 교수, 사회복지학, 연세대 Ph.D, 정회원
조성표	경북대 교수, 재무회계학, 연세대 Ph.D, 이사	
최태연	백석대 교수, 철학, 베를린 자유대 Ph.D, 이사	
최현일	샘병원 의사, 연세대 Ph.D, 이사	
추태화	이레문화연구소장, 문학, 아우그스부르크대 Ph.D, 정회원	
황영철	수원 성의교회 담임 목사, 신약학, 영국 서리대 Ph.D, 정회원	
편집실무자	석종준	사무국



손봉호



신국원



김대인



김반석



김유준



김셋별



김혜정



문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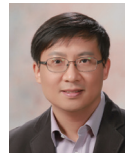
박동열



박영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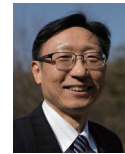
박진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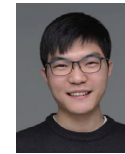
박흥식



석종준



양성만



윤현준



이병주



이상민



장수영



전명희



조성표



최태연



최현일



추태화



황영철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후원회원 신청하기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카카오톡 : ID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메일 : info@worldview.or.kr / 후원신청은 홈페이지로도 가능합니다. www.worldview.or.kr

신청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후원금액 및 방법 선택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후원방법	<input type="checkbox"/> 매월 CMS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매월 직접 입금	<input type="checkbox"/> 연후원금(12개월 분) 일시 납부		

CMS 신청자만 기록해주세요. * 신청자와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필히 예금주의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휴대전화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동의를 잘 읽고 **동의함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 청구를 통한 요금 수납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 종료일(해지일)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동의함** **동의안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출금이체 및 휴대전화 합산청구로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씨엠에스코리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효성에프엠에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님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님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결제정보제공자 :

(인) 또는 서명

(예금주 또는 가입자)

* 신청인과 결제정보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가 다른 경우, 반드시 결제정보 제공자(예금주 또는 가입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투고 안내

<신앙과 학문>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과 학문>에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호(29권 1호) 투고 마감일은 1월 31일입니다.

-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등재 학술지입니다.
- '기독교학문연구회'에서 1996년 이래 발행하고 있으며 '신앙과 일반학문'의 통섭을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등재학술지로 다양한 학제간 연구 논문을 모집합니다.
-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정회원은 누구든지 투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연 4회 발행하며 원고 마감은 각호 발행일 약 60일 전입니다.
(각호 투고 마감일: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논문투고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상 세 안 내.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기독교학문연구회' 항목을 클릭하여 참고하십시오.

일 반 문 의. gihakyeon@gmail.com(사무국, 학회) 02-754-8004

학술지문의. faithscholar@naver.com(투고, 심사) 02-3272-4967

*<신앙과 학문>은 한국연구재단(KCI)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